

나라
무춤내제
배이셔도
이런전
학문
나
미주
한
어
재
단

2022

The 12th KLF Annual Benefit Gala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한국어 교육과 이민역사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History of Immigration
in the USA

Keynote Speaker : **Joseph Juhn (전후석), Filmmaker**

Uncharted Path of Our Immigration History
미주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과 전망

Tuesday, Dec. 27th, 2022
7:00pm ~ 9:00pm : Gala Event & Seminar

Zoom Meeting ID: 514 388 2031
<https://us02web.zoom.us/j/5143882031>



KOREAN
LANGUAGE
FOUNDATION

T. 347-229-3723
info@koeranlangaugefoundation.org
www.koreanlanguagefoundation.org

5900 Arlington Ave. #16J, Riverdale, NY 10471

한국어 꽃이 미 전역에 피어나기를!
한국어와 함께 세계를 꿈꿉니다.

Learn Korean,
Lead New Millennium!



Dr. Jae Jin Kim

14 Linda Lane, Westport, CT 06880

203-226-0462, 646-256-3055

차례 Table of Contents



재단이념

미주장학재단 설립 목적

환영사	Welcome to Our Fundraising Gala	미주한국어재단 이사장 김영덕	8
개회사	제12회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개최	미주한국어재단 회장 이선근	9
축사	함께하는 뉴욕한인회가 되겠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회장 찰스윤	10
	한국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 미주한국어재단	뉴욕교육원장 이주희	11
	함께 한국어 교육의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회장 강성방	12
	한국 문화 전달의 꽃씨가 되어.....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13
	Korean language as a world language	IKEN 이사장 수지오	14
	더 많은 한국어 반의 개설을 바라며.....	미정규학교한국어교사협의회회장 신아일린	15
축하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류 모니카 M.D.	16	

제12회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식순.....	사회 안현주, 흥태명	17
------------------------------	--------------------	----

기조강연	미주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과 전망	영화감독 전후석	19
	Uncharted Path of Our Immigration History		

패널글	이민자는 역사의 주인공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20
	미국에서의 한국문화 확산과 한인 2세의 민족 정체성	퀸즈대학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 민병갑	21

특별기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한글	미동부한인문인협회장 노 려	26
------	----------------------	-----------------------	----

한국어반 장학생 명단.....	안현주	28
------------------	------------	----

한국어반 장학생 글

장학생 글을 읽으며	미주한국어재단 사무총장 조미경	29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나요?	Juhee Park	30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Hawa Drammeh	31
My Passion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Fontayjiah Hamilton	33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내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Ella Chen	34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Marla Aubourg	36

차례 Table of Contents



왜 한국어를 배워요?	Heart Lorraine Joy Diaz	38
Why I Love Korean Class?	Ermy Almonte	39
Korea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 Learner	Luisa Martinez	41
Why I Study Korean?	Alexandria Lee	43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나의 꿈	Jason Hur	45
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반 개설 및 수강 학생 현황	이선근	47
교사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류경자	48
한국어 교사로 준비되고 한국어 교사로 살기	이민영	50
SEED Harlem에서 늦깎이의 새로운 도전	장그레이스	53
재단 장학생글 소망을 꽃 피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9기 이영주	56
2022년도 한국어교과과정연구위원회 연구개발 사업	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교과과정연구회 위원장 박찬미	57
New York State Korean Alphabet Day		58
미주한국어재단 임원 및 이사진 조직도표		60
미주한국어재단 연혁		61
후원 업체/개인		67



발 행 처 | 미주한국어재단 (www.klfusa.org)
 발 행 인 | 이선근
 편 집 | 흥태명, 조미경, 조경자, 이은주, 오윤
 인 쇄 | 예림디자인
 발행 일자 | 2022년 12월 27일

재단이념

미주한국어재단

Korean Language Foundation

‘한국어 운동의 근본 뜻’

미주한국어재단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국어 운동의 근본 뜻’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어 운동의 근본 뜻’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깨끗하게 하기

둘째, 한국어 쉽게 하기

셋째, 한국어 바르게 하기

넷째, 한국어 풍부하게 하기

다섯째, 한국어 너르게 번지게 하기



미주한국어재단

Korean Language Foundation

■ 설립목적

한국어반 개설

미주한국어재단은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인 학생은 물론 타민족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반 개설을 추진합니다.

미국 교육과 함께 하는 한국어 교육

동서고금을 통해 한글만큼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미국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다민족, 다문화를 존중하는 미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21세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는 한국어 교육

이를 통해 미국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정치적 위상을 높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국 사회의 주요 동반자로서 한국과 한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한인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어 교육

미국 사회는 각 민족 성원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 인재에게 미국의 미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며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밑거름입니다.

■ 재단 사업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 반 개설 활동

- 미동부 지역 교육 행정가 한국연수 프로그램
- 각 지역 교육위원회, 학군장, World Language Department와 교장을 비롯하여 PTA, 한인학부모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학군에 한국어 반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각 학교 현실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 제안과 운영: 한국어 Pilot Program, 방과 후 학교, 한국문화 특별 활동 수업 등

한국어 교사 양성

- 교사 지망 장학생 장학금 지원 (매년 수명 장학생 선발)
- 미국 동부 지역 각 주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 소개 세미나
- 각 주의 대학에 한국어 교수와 공동작업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설치

- 뉴저지: Rutgers University
- 뉴욕: Queens College, CUNY / Stony Brook University, SUNY
- 시카고: Northeastern University of Illinois

한국어 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지원

- 한국어 교과 과정과 교재, 교수법 개발 연구
- 한국어 교사 전문성을 위한 연수와 자료 제공
- 각 지역 한국어교사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수업과 체험활동 지원
- 미동부 한국어 반 우수 학생 한국 연수와 장학 프로그램
- 한국어 AP과목개설 준비위원회 발족과 추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

-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범동포운동 전개
 - 한국어 운동 캠페인
 - 학부모 교육 세미나
 - 한국어 교육 소식지 발행
 - 정기 기금모금 마련의 밤
- 관계기관과 협력, 지원관계 구축
 - 한글날 기념행사
 - 여러 한국어 관련 대회
 - 한국학교, 대학 한국어 반과 문화행사 개최

한국어 반 개설 학교

- NJ
 - Palisade Park Jr/Sr High School
 -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Old Tappan
 -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Demarest
 - Fort Lee High School
 - Rutgers University
 - Empowerment Academy Charter School
 -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High School
 - Lindbergh Elementary School
 - Palisades Park Jr/Sr High School
 - Ridgefield Memorial High School
- NY
 - Democracy Prep Harlem H.S.
 - Democracy Prep Public School
 - Bronx Prep High School
 - Democracy Prep Public School
 - South Bronx Academy Applied Media
 - Melrose School (PS/MS 29)
 - Columbia University
 - The New School College
 - Mott Hall III Middle School
 - P.S. 308 Clara Cardwell School
 - Syosset High School
 - Syosset Thompson Middle School
 -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 School of Earth Exploration and Discovery(SEED) Harlem
- Chicago
 - Sawyer Elementary School (PK-8)
 - William Howard Taft High School



Welcome to Our Fundraising Gala

미주한국어재단 이사장 김영덕

Board Chair **Yung Duk Kim**, Ph.D.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everyone to our 12th annual fundraising gala.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07. 2022 marks its 15th year of sowing seeds, perseverance, and achievements in promot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spite the challenging past three years of COVID pandemic, with your continuous and enthusiastic support,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Korean increased from a mere 26 in 2010 to over 3,000 this year. The Korean language program initiated by KLF now takes place in 2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 also proudly convey to you that among KLF scholarship recipients, more than 30 obtained thei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tate Certification. A number of the scholarship winners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requirements at schools including Rutgers University, CUNY Queens College, and Stony Brook SUNY. I take pride in reporting that our accomplishments are due to our fundraising over \$600,000 from the most generous tri-state Korean community.

Due to the pandemic two very popular Korean government supported programs, Education Leaders Tour, and Korean Language Student Study Excursion to Korea, are temporarily suspended. Nevertheless, I am optimistic that these programs will be renewed soon.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Development Research project,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2017, is thriving with data derived from front line teachers throughout the country. Another important project initiated in 2021 by KLF and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Korean Language Teacher Workshops. It is encouraging to know that for two workshops presented this year, 95 educators from 11 states participated.

Therefore, we would appreciate your supporting our mission which is 1) to establish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cademic subject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2) to raise scholarship fund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ighly qualified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3) to retain great educators by provid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Again,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for attending our gala and those who made this endeavor possible, including all the executives, board members, advisory board members, teachers, scholarship winners and volunteers. Thank you.



제12회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개최



미주한국어재단 회장 이선근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기금모금의 밤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은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한인 학생과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정규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 재단은 한국어교사 양성과 미국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원도 없었고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지역 동포들의 정성 어린 지원과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있었기에 우수한 한국어교사들을 배출시킬 수 있었고 정규과목 한국어반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어교사와 강사로는 대학교에 4명, 고등학교에 12명, 중학교에 9명, 초등학교에 2명, 모두 27명이 됩니다. 그중 올해에 강사나 교사로 부임하신 분이 대학교에 1명, 고등학교에 1명, 중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수가 모두 2,938명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학생수가 704명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미주한국어재단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한국어 교과과정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뉴욕 영사관 내 한국교육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연구가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뉴욕한국교육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연구 끝에 한국어 2 교과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사업은 우리 재단 출신 한국어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수고하는 한국어교사들도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에 수고하는 연구위원들이 용기를 갖고 연구에 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위원 6명 중에 California, Virginia, Washington 3개 주에서 교사 3명이 참가하여 수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어교과과정 연구개발과 함께 중요한 사업이 워크숍 개최였습니다. 올해에는 두 차례 워크숍에 미국 11개 주에서 교사들이 50명이 참여했는데, 새로 임용된 한국어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 고무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부터 워크숍을 하게 된 것은 뉴욕한국교육원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뉴욕과 뉴저지주만이 아니라 미국 여러 주의 한국어교사들이 우리 연구사업을 알게 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금년에 얻은 좋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이 지난 15년 동안에 30명 이상의 한국어 교사를 배출시킬 수 있었고 27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된 것은 한인 동포들의 귀중한 후원금과 뉴욕한국교육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미주한국어재단 모금의 밤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회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개최



뉴욕한인회장 **찰스 윤**

미주한국어재단의 제 12회 기금 모금의 밤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부모세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민족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정체성 함양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확산을 통해 한민족의 문화와 얼을 깨우치고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 큰 노력을 하고 계신 미주한국어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한국어 교육과 이민역사입니다. 한인 이민 1세대는 역동적으로 삶을 개척했고 또 이민 선조들이 세운 한인사회는 미국 내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문화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50만 뉴욕일원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뉴욕한인회도 민족의 정신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류로 대변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소중한 가치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미주한국어재단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미주한국어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 미주한국어재단



뉴욕한국교육원장 이주희

2022년 제12회 미주 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영덕 이사장님, 이선근 회장님, 홍태명 부회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은 설립 이후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정규학교 한국어교사 채용 지원 등을 통해 뉴욕, 뉴저지 일원의 초.중.고 등 정규학교가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교과과정연구회를 조직하여 한국어 교수법 연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여 연구된 내용을 미주 지역 한국어반 교사에게 활발하게 확산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와 같은 한국어 교육 확산 및 한국어교사 양성에 대한 공로를 바탕으로 이선근 회장님이 국민교육 발전 유공 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큰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뉴욕주가 한글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뉴저지주가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뉴욕시는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문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어를 채택하여 가르치는 정규학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그동안의 헌신적 노력과 꾸준한 활동의 결실이며,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이고 차세대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 공헌하고 계신 미주한국어재단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욕한국교육원도 그간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주한국어재단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한국어 교육의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회장 **강성방**

매년 이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강연 주제인 “한국어 교육과 이민 역사”는 한국학교 최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한국학교 협의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많은 부분 공감하며, 시의적절한 주제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어교육의 시작이 곧 한국 이민 역사의 시작이며, 그 역사의 근간 역시 한국어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미주 한국어재단과 저희 한국학교 협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씨앗을 뿌렸고, 정성 들여 가꾸어 가는 과정을 거쳐, 조금씩 결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그 과정 하나하나에 미주 한국어재단 관계자분들의 공로가 뒤에 있었음을 깨달으며 협의회를 대표해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갈라 행사가 많은 후원자의 참여와 박수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됨과 동시에, 추구했던 바가 열매로 맺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미주 한인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대표적인 단체로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 전달의 꽃씨가 되어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미주한국어재단 제12회 기금 모금의 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연말의 따스한 불빛이 온기를 더 하는 겨울날, 멀리서나마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한국 문화의 매력이 세계를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어도, 문화 전달의 꽃씨가 되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함께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을 것입니다. 나라 밖,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공고히 다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큰 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노고만큼, 핵심적이고 소중한 자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한국어의 모습이 나날이 다채로워집니다. 국립국어원 또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교육을 이끄는 교원을 양성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외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한국어교원의 인적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국어원에도 지원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의 작은 물결이 여러분의 힘으로 점점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우리 언어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 빛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금의 밤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선근 회장님과 미국의 한국어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Korean Language as a World Language

Dr. Suzie Oh

Adjunct Facul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Former Principal,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Chairwoman of the Board, IKEN



Dear KLF (Korean Education Foundation) leaders, you are all to be commended for your relentless efforts and commitment to promote the Korean language as a world language.

As chairwoman of IKEN (International Korean Educators Network) board, I am honored to share some of my thoughts on the 12th KLF Annual Benefit Gala in 2022.

When I served as a public school principal in th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I was fortunate to implement the Korean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at Third Street School in the affluent Hancock Park area in Los Angeles starting 1998. I have a special affinity and passion for 3 Ls: Language (Literacy), Learning, and Leadership. I was blessed to get support from a diverse group of parents (predominantly Jewish American and Korean American parents), competent teachers, and motivated students.

We are all cognizant tha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require sharing continuous research-friendly practices, learning & growing together and connecting with others.

Let's continue our collective efforts for research-based and practice-validated practices.

Let's continue to share our best practices and reflect together.
Because TOGETHER, we CAN and Will make a difference.



더 많은 한국어반의 개설을 바라며



미정규학교한국어교사협의회장 신아일린

2007년 처음 재단이 창립된 후,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알리고 한국어반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미주한국어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재단 기금모금 갈라에 이렇게 축하 인사 말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이 꾸준히 한국어 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뉴저지, 뉴욕, 시카고 및 여러 지역의 정규학교에 한국어 반을 개설과 확장하며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더 많은 장학생 선발과 함께 한국어교사를 배출하시어, 더 많은 한국어 반을 곳곳에 증설하시고,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데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다섯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된 이민 1.5세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어와 일본어가 미국 땅에서 외국어로서 인정 받는 것을 보며, 하루빨리 한국어도 외국어로 인정을 받아, '나도 한국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어, 지난 17년 동안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꿈을 꾁니다. 한인 2세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비한국계 학생들까지도 한국어라는 과목을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스스로 알리고,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기를 말입니다.

미주정규학교한국어교사협의회(KLTA)는 미전역에 있는 정규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교사들이 회원입니다. 여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돕기 위한 단체입니다. 한국교육원 및 여러 교육 후원 단체와의 연결을 돕고,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한국어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한국어 교육 발전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저와 저희 단체는 아직 한국어가 보급되지 않은 더 많은 지역에 한국어 반이 개설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정규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과 한국어교사를 돕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멘토링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단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올해로 맞이하는 12회 미주한국어재단의 기금 모금의 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유 모니카 M.D.

미주한국어재단(Korean Language Foundation)이 설립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미주한국어 재단은 그간 Greater New York을 중심으로 공립, 사립학교 차세대 학생들이 한국어를 월드랭귀지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뜻깊은 역사적인 기회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글 세계화에 저희 한국어진흥재단과 함께하여 오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고교생들에게 그리고 한국어 교사의 꿈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 필수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장학금을 기여해 왔습니다. 참으로 존경할만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이사님들과 임원진이 실행해 오셨고, funding을 위한 Gala를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funding을 모은다기보다는, 뜻있는 교민들과 주류 사회가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22년 이 행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이민 역사'라는 토픽을 주제로 디아스포라의 삶과 뿌리 교육을 뒤돌아볼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우리들의 조상, 조선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과 크리스천 주 말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찌면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차세대 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을 담당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모국에 대한 자녀교육, 즉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 전통에 대한 관심은 진했고 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옆의 사진은 UC Riverside 소장품입니다. 1910년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몇 분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에서 오렌지 농사를 지었던 때의 것입니다. 주말이면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했고, 주일학교를 만들어 크리스천 교육 이외에, 한국어 교육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초심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전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이민을 온 조상들이 설립했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진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조상들의 행적을 보면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뿌리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현대를 사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국어 교육, 나아가서는 한글 세계화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2023년을 꿈꾸면서,

제12회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2022 The 12th Annual Benefit Gala Program

7 PM December 27, 2022

✧ 제 1 부 Part 1 ✧

사회: Masters of Ceremony **안현주 | 홍태명**
Hyun-Ju Ahn, Korean Language Teacher, IHPCH
Tae-Myung Hong, CPA, VP of KLF

국민의례: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Pledge of Allegiance & National Anthems

환영사.....미주한국어재단 **김영덕 이사장**
Welcoming Remarks Dr. Yung Duk Kim, Chair of the Board, KLF

개회사.....미주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
Opening Remarks Dr. Sun Gun Lee, President, KLF

축사..... **뉴욕한인회장 찰스 윤**
Congratulatory Remarks Charles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Assoc. of Greater NY

뉴욕교육원장 이주희
Juhui Lee, Director of Korean Education Center of NY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격려사..... **강백현**
Encouraging Words Baik Hyun Kang

미주한국어재단 **활동현황**.....미주한국어재단 **조미경 사무총장**
Korean Language Foundation, Present and Future Mikyong Cho, General Secretary, KLF

한국어반 장학금 수여 및 에세이 말하기
Scholarship Awards and Essay Presentation

A. "Why I Love Korean Class" **Ermy Almonte**
Melrose PS/MS 29

B.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Hawa Drammeh**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Democracy Prep Harlem HS

C.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Marla Aubourg**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D.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나의 꿈" **Jason Hur**
Palisades Park HS

🌀 제 2 부 Part 2 🌀

사회: Masters of Ceremony 안현주 | 홍태명

Hyun-Ju Ahn, Korean Language Teacher, IHPCH
Tae-Myung Hong, CPA, VP of KLF

강사 소개..... 김수진
Introduction of Speakers..... Soo Jin Kim, DDHHS Korean Language Teacher

기조 강연..... 전후석 감독
Keynote Speech..... Filmmaker, Joseph Juhn

"Uncharted Path of Our Immigration History"
"미주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과 전망"

패널 1..... 민병갑 교수
Panelist..... Pyong Gap Min, Professor of CUNY & Queens College

패널 2.....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Panelist..... Dong Suk Kim, President, Korean-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참가자 질의 응답
Participants Q&A

폐회
Closing Remarks

미주한국어재단 갈라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Your presence is greatly appreciated !



Uncharted Path of Our Immigration History



영화감독 **전후석**

재미 한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본국에서 떠나 타지에서 본국의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며 사는 이들을 일컫는다.

내가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를 제작한 것은 쿠바에서 한인을 만나며 순전히 우연에 기반하였지만, 그에 대한 작업을 결심한 배경에는 저자인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미 한인을 비롯한 한반도 밖의 한인들, 즉 디아스포라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고민이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A. 정체성 고민 (한국 편)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만 3살 때 가족과 함께 들어와 평범한 한국인으로서 자라났다. 한국은 세계에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이다.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에 결여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나는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정규과정을 수료했는데 단 한 번도 같은 학급에,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 외국인을 본 기억이 없다. 그 말인즉, 적어도 인종적, 문화적, 국가적 맥락에서 나는 다양성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공통점을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의 한인됨을 고민 혹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B. 정체성 고민 (미국 편)

자각하지 못하던 자신의 ‘한인 됨’이 자각되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면서 일어났다. 18살 때 미국으로 (돌아)오며 나는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느낌에 강력하게 반응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던 경험도 있었지만, 자아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청소년기 말에 미국에 왔을 때, 나는 과연 내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시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당시 내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한국성 (Koreanness)를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특별히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다만 미국인들이 나

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수동적 태도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Koreanness를 되도록 배제하고 최대한 미국화, 주류화, 백인화 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 태도가 그 두 가지였다. 나는 후자를 택했고 백인화/주류화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미국화되어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과만 어울리려는 의식적 노력을 택했다. 이 노력은 고등학교 말부터 대학교 내내 이어졌는데, 대학교 2학년 말 때, 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1992년 LA 폭동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였는데, 이 사건은 Korean American, 즉 재미 한인이라는 정체성의 탄생을 - 그 필요성을 -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 1992년, 흑인을 폭행했던 백인 경찰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그 후 72시간 동안 흑인들과 라틴계,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LA에 위치한 한인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다.

왜 그들은 한인들을 공격했을까?

한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고용했던 직원 혹은 손님이었던 다른 소수계들에게는 공격받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미국 경찰 등 공권력엔 무시당하며 주류 언론으로부터는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아메리칸드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적 경험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인들은 외부적으로는 권력 신장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는 다른 소수 민족과의 화합과 우리 내부에 있는 인종차별적 근성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한인 이민자” 성격이 강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재미 한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은 현지화를 뜻한다. 철저히 미국화/주류화가 되는 작업이다. 미국화 주류화가 되는 것은 정치/경제/언론/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LA 폭동 사건을 배우면서 그전까지 고민하던 “한국인”이 될 것인지 “미국인”이 될 것인지를 기로에서 제3의 정체성의 대안을 찾았다. 그것은 “재미 한인” (Korean American)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C. 정체성 고민 (디아스포라)

나는 재미 한인으로서의 나 스스로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가졌던 직장은 연변에서였다. 2007년에는 중국이 향후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등장하던 때였다. 나는 그런 중국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관심은 중심도시에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자리가 아닌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 자치주에 있었다. 마침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구인 광고를 보았고 한 학기 동안 홍보팀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주로 교내 영상 촬영과 제작, 또 중국 한족들에게는 한국어를, 조선족 친구들에게는 영어를 과외하며 한 학기 동안 연변을 경험하였다.

나는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며 세계관이 변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의 모든 관심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사이였는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한 정치, 사회, 지리적 위치에

서 생성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미국처럼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을 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한족 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많은 조선족 친구들은 자신이 당연한 중국인이라고 여기었고 자신의 한인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민족정신이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그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재미 한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의 있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독일 배낭여행을 갔을 때 독일 후손들이, 브라질 인턴십을 갔을 때 브라질 한인 후손들이,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거기 교민들과 후손들이, 대학 때 활동하던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교류했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만난 한인 입양아 친구들 등, 각 나라마다 각자 자신이 자각하는 혹은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씨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한반도 밖에서, 혹은 대한민국으로 회귀했지만 속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연 “한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인가.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나름대로 각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찾았기에, 아직 그러지 못한, 무방비로 남겨진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한국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 정체성 이슈에 고민하는 디아스포라들은 기본적으로 확장된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자신이 노출된 세계가 단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 본인의, 혹은 가정에서 배우고 축적된 문화적, 도덕적, 역사적 가치관이 가정 밖 현지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다르고 충돌할 때 그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이질적 두 세계에 대해 납득 혹은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자아에 대한 탐구와 질문은, 철학적 혹은 신앙적인 고뇌와 유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존재론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존재론적인 고민을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야말로 단일 문화권에서 자라나는 이들보다 더 풍성한, 깊은 자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정체성 고민 (세계시민)

한국인 - 재미한인 - 디아스포라의 순서로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 발전되어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것은 자아를 인식하는 데 있어 건강한 과정이나 목적이 결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건강한 정체성의 여정은 편협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다. 바로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아시아계’로서 느끼는 불완전한 소속감을 통해 결국 온전한 소속감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인간애에 기반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민자는 역사의 주인공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Human history has been a history of continuous migration toward a better life
인간의 역사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끊임없는 이주의 역사다.

A long journey to the next best land
차선의 대지를 향한 기나긴 여정이다.

이민자는 역사를 창조하는 시대의 주인공이다.

역사는 원주민이 아닌 정착민이 이끌고 있으며 모국은 출신국에 불과하다. 새로운 대지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민자의 일상이고 그러한 일상에서 분출하는 긴장이 삶에 대한 가능성과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 낸다.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일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된 근대사회 이후에도 이주(민)의 목적과 가능성은 변함이 없다. 에덴동산 추방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신의 축복은 떠나는 자에게 내렸다.

나는 미국으로 이주한지 30년이 지나서야 이민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총체적인 고백이고 정체성이다.

(미국 내 한인 디아스포라 운동과 아르메니안 디아스포라 운동의 비교)

◆ 여전히 문제는 공동체 의식 '나는 누구인가?'

1985년 처음 뉴욕에 발을 내렸을 때, 20대 후반인 필자에게 가장 큰 충격은 '인종차별'이었다. 퀸즈 엘머스트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표정롤씨 폭행 사건'이 마치 필자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터졌다. 백인경찰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한인택시 운전사를 참혹하게 폭행했다. 가해자인 폭행경찰에 대항하는 (소수)한인들의 움직임이 한인과 경찰과의 전선을 만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는 기억은 인종차별의 울화통 터지는 내용이 아니고 뉴욕 도시권에 살고 있는 30만(당시 뉴욕한인회는 30만 뉴욕한인 동포라 했다) 한인들의 '침묵'이다.

그때로부터 만 7년 후인 1992년 LA폭동이 났다. 한인들이 30여년 이상 피와 땀으로 일군 생업의 터전이 홀라당 날아갔다. 집단적인 정치적 대응에 무력했던 원인을 한국어 매체들은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본국 지향적이란 결론으로 기사를 냈다. (LA, 뉴욕, 시카고...등) 한인 커뮤니티 내에 정치력 신장의 궁

리가 일기 시작했다. 한인 권익운동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이철수씨 구명운동'으로부터 반백년이, 뉴욕 표정률씨 폭행사건이 지난지 40년이 LA폭동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취학 전에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 소위 1.5세들이 40대 후반이 되었다. 대도시 내 한인커뮤니티의 전면에 이들이 주역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사회의 차별은 여전하고 한인커뮤니티의 불이익을 막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다. 정치력 신장의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인들의 정치적 결집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타인종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 1세들이 보물같이 여기는 자식세대 (1.5세나 2세)들은 어떤가?

◆ 공동체 의식은 역사인식에서 ...

한인 2세들의 뿌리교육은 코리언어메리칸 교육이어야 한다. 우선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미국 내 소수계의 이민역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인 이민역사는 미국역사의 일부분이고 한국역사의 연장이다. 가정이나 주말 한국학교가 아니면 2세들은 자기의 뿌리역사인 '한인 이민역사'를 배울 곳은 아무데도 없다. 출세한 2세들이 부모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한인 2세들에게 한인 이민역사를 가르치지 않고서 뿌리의식(정체성확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국의 흑인들이 아프리카'라는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노예로 끌려온 조상들의 참혹한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인식하면서부터 가능했다. '나는 누구인가?'로 출발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다. 역사의식은 스스로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자신감은 정체성의 확립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고조선, 삼국시대를 언급하기 이전에 미국역사이기도 한 한인 이민역사를 우선 알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

◆ 2세 교육 돌아보기

해외동포(디아스포라) 모국어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 30여년의 한국학교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되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이상의 한국학교 교육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보다 더 확고한 2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더 나은 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초창기 학교를 설립한 이민 선배들의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일이고 진정한 디아스포라의 모국어 교육, 정체성 교육을 위하는 일이다. 한국학교를 졸업한 30대의 2세들을 조사해서 한국학교가 설정한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그 공과 실을 엄정하게 분석해 내야 할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글)국학교의 올바른 교육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학교 태동기에 비해서 한국어 교육의 수효도 또한 그 동기도 많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교사와 학습교재와 커리큘럼은 초창기의 그대로일지 모르겠다.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이란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이 요구될 때,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한국과 한국인만을 강조하고 있거나 않은지 돌아볼 때다.



미국에서의 한국문화 확산과 한인 2세의 민족 정체성

민병갑

퀸즈대학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



여러 나라에서 이민 물결이 몰려와 세워진 미국사회는 앵글로색슨 북유럽계 백인이 맨 처음 자리잡아 그들이 주류가 되었다. 그 이후에 이민 온 다른 여러 이민 인종 및 민족은 백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소수민족의 1.5세 및 미국출생 2세들은 어린시절에 자기 피부 색깔과 문화관습을 창피하게 여기고 백인 학생들의 피부색과 문화관습을 흉내 내려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2-3학년이나 대학 1-2학년쯤에 자신들의 피부색깔이나 문화관습에서 미국 백인과 다른 점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족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전후석 감독에게는 대학교 2학년 때, 1992년에 일어난 LA 4.29 폭동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미국 내 한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LA 한국 이민자 상인들이 폭동의 큰 피해를 보고도 미국 경찰이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취급 받게 된 사실을 배우고 그는 재미 한인들이 미국의 소수민족으로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여러 나라에 형성된 한인커뮤니티를 방문해서 영화도 만들고, 한인 후손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재미 2세 한국인으로서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60-1970년대에 출생한 한국 및 다른 아시아계 1.5세와 2세들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고통과 갈등을 느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태어난 아시아계 2세들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다. 첫째로, 민족성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었던 백인의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훨씬 줄어들었다. 둘째로, 미국정부와 학교가 1960년대부터 다문화주의를 실시해 여러 이민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이민 자녀들을 문화적으로 미국화시키는 것이 미국 공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학교가 외국어 및 이민자들의 모든 문화전통을 미국문화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로, 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모국의 문화가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초부터 유튜브 등의 SNS의 놀라운 발전으로 고국의 문화활동을 미국 현지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및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한인 2세들이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점점 커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및 한국 대중문화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인 2세들의 한인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국정부 정책자들은 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을 도입하는 것이 한인 2세들의 정체성 유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및 문화유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요소는 한인커뮤니티에 한국 학교를 발전시키고, 미국 학교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보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커뮤니티는 다른 아시안 계 커뮤니티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한다. 특히 150여 개에 달하는 한국학교는 물론 미국학교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도록 노력해 온 한국어재단의 활동은 그동안 큰 성과를 거뒀다.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크게 공헌한 분으로 허병렬 선생님, 김영덕 박사님, 이선근 박사님과 이광호 선생님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 허병렬 선생님은 지금은 연세가 90대 중반을 넘어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셨다. 그러나 김영덕 박사님, 이선근 박사님과 이광호 선생님은 80대임에도 본인들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한국어 보급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한인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전통 유지를 위해 한국어 보급에 노력하시는 노인 삼총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인동포들이 한국어재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한글

노려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미주한국어재단 회보에 '축사'를 쓰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들이 목요일 밤에 하룻밤만 더 자면 한글학교를 가야 한다고 울곤 했었다. 토요일이면 늦잠도 자고 싶을 테고,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야구나 축구를 얼마나 하고 싶을까 해서, 또한 내 입장에서도 고속도로를 한 30분 운전해야 하는 것이 고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1년 정도 한국학교에 보내고 그만두었다. 교회에서 하는 한국학교에도 절대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전통에서는 뺄 수 없는 불교나 유교 문화는 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다. 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 웬만한 한국말을 해서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었기에, 다른 집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면 감탄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들 하는데 애국자도 되질 못한 것 같다.

그러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한글 교육'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 '미동부한인문인협회'에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 고등학교 백일장' 심사를 팬데믹 중에 두 번, 23년째인 올해까지 연거푸 세 번을 맡고 나서 갑자기 미국에서의 한글 교육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팬데믹 때 이메일로 받은 학생들 글과 얼마 전 교실에 참관을 하여 받은 학생들 글의 수준이 천지 차이가 났던 것은 그렇다 치고, 시험을 보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의 실력을 한꺼번에 평가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여기서 태어났는지, 어렸을 때 왔는지, 다 커서 왔는지를 따져가며 학년과 글솜씨 재능까지 합해 채점하기가 쉽지 않았다.

20여 년 전에는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한글로 글을 쓴다는 사실만으로도 감탄하고 만족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팝 문화가 폭발을 했고 오징어 게임으로 히트를 한 넷플릭스에는 수십 개의 한국 드라마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어가 인기를 얻자 우리 차세대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나선다. 배우기도 쉬워졌다. 더구나 요즘 손안의 셀폰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세계 언어가 다 통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차세대들이 한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무엇보다도 언어로서 이어지는 한국인의 혼과 정서가 아닐까 한다. 한국어의 위상과 자긍심은 충분히 세워졌다고 본다. 이제는 최현배 선생님의 '국어 운동의 근본 뜻'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깨끗하고, 쉽고, 바르고 풍성한 한국어를 널리 퍼뜨리기, 이 중에서 나는 <깨끗하고>에 방점을 찍고 싶다.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된 내 아이들이 나에게 자기 애들한테는 한국말을 하라고 은근히 요구하길래, "아이에게 한국말을 시키고 싶으면 엄마 아빠인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나는 2살, 3살 아가들에게 되도록 한국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의사소통을 넘어선 할머니의 한 없는 사랑이 우리 아가들의 깨끗한 마음에 살며시 스며들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한국어반 장학생 명단

	학생	학생 에세이	학교(지도교사)
1	Juhee Park (12th)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나요 ?	Fort Lee High School (교사 김성미)
2	Hawa Drammeh (12th)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교사 김수진)
3	Fontayjiah Hamilton (12th)	My passion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High School, NJ(교사 류경자)
4	Ella Chen (8th)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내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P. S. Clara Cardwell Middle School (교사 안금주)
5	Marla Aubourg (11th)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IHPCH) (교사 안현주)
6	Heart Lorraine Joy Diaz (11th)	왜 한국어를 배워요?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Old Tappan (교사 이명진)
7	Ermy Almonte (8th)	Why I love Korean Class	Melrose PS/MS 29 (교사 이민영)
8	Luisa Martinez (8th)	Korea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 Learner	Melrose Psms29, Bronx NY (교사 이민영)
9	Aedan Gavina (7th)	안녕하세요 여러분!	Empowerment Academy Charter School (교사 임선희)
10	Alexandria Lee (12th)	Why I Study Korean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Demarest (교사 허영재)
11	Jason Hur (12th)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나의 꿈	Palisades Park Jr./Sr. High School (교사 황정숙)
12	Raven Thompson (4th)	Korea's Place in the World and in the USA	P.S. 308 Clara Cardwell School (교사 안금주)



장학생 글을 읽으며...

미주한국어재단 사무총장 **조미경**

우리 교사들에게 매일 여러 가지의 할 일이 “나 먼저 봐주세요.”라며 경쟁을 한다. 그 와중에 미주한국어재단에서 “선생님, 학생 에세이 추천해서 보내주세요.”라는 이메일에 답하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Fort Lee 고등학교의 박주희 학생의 에세이를 읽으며 어휘력과 경험을 통해 일찍 자국어의 중요성을 깨달음에 나는 감탄 한다. 주재원이신 아버지 덕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거주하며 자국 문자가 없어서 영어 알파벳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보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해서 깊이가 부족하고, 문학이나 철학 등 깊이 있는 인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은 어려워 보였다.”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고유한 문화와 발전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어는 5천 년을 이어온 소중한 우리의 말이고, 이를 표현하는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 과학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배웠다.”라고 말하는 박주희에게 한국어를 깊이 연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류경자 선생님의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접하게 된 후, K-pop에도 빠져서 교장 선생님께 한국어반 개설을 즐라댄 듯하다. 류선생님의 부임은 이 학생 덕분이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민영 선생님의 학생 Ermy는 한국어 기능을 훌륭히 묘사했다. 이 학생이 제대로 터득하여 이 선생님 모방을 꽤 잘하는 것을 읽으며 미소가 떠오르고, 이선생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눈에 선하다.

이명진 선생님의 학생, Heart Diaz는 한국어 반에서 본인은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첫해에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그 교실에 있는지 초점을 잃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는 말은 그저 예쁘기만 하다.

초등학교 3학년일 때 California로 이민 온 Jason Hur는 황정숙 선생님의 학생이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콤플렉스였기에 한국어를 다시 정확히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뉴저지로 이사를 하며 한국어반 수업을 듣게 된 Jason은 2021년에는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주최 ‘한글날 기념 고교 백일장 대회’에서 수필을 써서 4등 장려상을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한국어를 더 배워 몇 년 후에는 한국 군대에 입대해서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은 든든하게 들린다.

교단에 서서 열심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어느 학생의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 좋아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라고 쓴 글에서 반영된다. 우리 선생님들 최고!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나요?

Juhee Park (12th)
Fort Lee High School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신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싱가포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국제학교에 다니며 외국 친구들과 사귀다 보니, 나중에는 영어가 좀 더 편한 말이 되었고, 한국어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친구들 중에 싱가포르 친구도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부모님이 오래전에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오셨던 분들이었고, 친구들의 부모님은 중국어 대신에 국가통합을 위해서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생각을 표현방식이 단순해서 깊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한 나라였고, 같이 어울려 사는 말레이 민족, 인디안 민족과는 사회통합을 잘 이루고 있었지만, 문학이나 철학 등 깊이 있는 인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이 나라는 자기 문자가 없어서, 알파벳을 빌려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별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이뤄지긴 했지만, 깊이 있는 사고 전달이나,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하나 됨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고유한 문화와 발전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어는 5천 년을 이어온 소중한 우리의 말이고, 이를 표현하는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 과학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은 영어가 더 편한 언어이긴 하지만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자랑스러운 민족과 국가로 성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Hawa Drammeh(12th)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and solidifying our country's identity. From the contributions of Filipino nurses in WWII to the brain drain of highly skilled immigrants in the 1960s, Asian American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and culture. It's a well-known fact that Asian Americans are the fastest-growing racial group in the U.S., but despite this fact, their history isn't includ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n the surface, this issue may appear to be a relatively minor, esoteric one – one with little practical significance. However, this is a huge problem because it prevents AAPIs from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nd visibility in history. It also ignores and undermines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s history. So, I believe that AAPI history should be a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Firstly, AAPIs have been in the U.S. since the mid-1800s, when Chinese labor was needed to build the railroads and work in the mines and on farms. In addition, the first wave of Korean Americans, who arrived in Hawaii, worked on pineapple and sugar plantations. Also, the first Japanese generation, also known as Issei, came over to also work on sugar plantations in Hawaii. Many Americans are not aware of some of the things I've listed above. Similarly, before attending Democracy Prep, I, too, didn't know the full extent of AAPI history. In 9th grade, we learned about emperors and leaders of different Asian countries. Additionally, we bega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also dug deeper into Korean history. Due to Democracy Prep including AAPI history in their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in their foreign language class, I was able to establish a better understanding of AAPIs and their history that does tie to America.

Secondly, "Asian Americans" is a broad umbrella that encapsulates a variety of ethnicities, including Chinese, Japanese, Korean, Vietnamese, Indian, and Cambodian. Despite their diversity, Asian Americans are often painted with the same brush. Many stereotypes and misunderstandings about AAPIs exist in America. The image of Asians in the Western World is distorted. This phenomenon has a long history. Let us focus on some of them. It's a common stereotype that Asians are smarter than others. Asians are also portrayed as being more competitive, disciplined, hardworking, and studious. This is known as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The Asian stereotype of nerds and smart kids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ecause there are many Asians who have excellent grades and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switch in today's society. You can see that there are plenty of Asians who are not nerds and not only have good grades but also have other talents like being good athletes like Jeremy Lin, singers like M.I.A, or actors like Ming-Na Wen. Also, there are stereotypes stating Pacific Islanders are lazy and alcoholics. The other stereotypes that Pacific Islanders have are that they are not intelligent or uneducated people. This is harmful. The contributions and history of AAPIs are often overshadowed by these stereotypes and misconceptions. And you'd think in a highly developed nation such as America, stereotypes, and misconceptions such as those about AAPIs wouldn't exist but they sadly still do.

During the COVID-19 lockdown, racism, hate, and anti-AAPI sentiment were growing issues among Americans. There was a constant bombardment of racist commentary occurring on social media and violent hate crimes that occurred on a day-to-day basis, on subways, and on the streets. The spread of hatred against Asians has been documented on social media sites as well as in videos, images, and voice recordings. People were being told to "go back to China," (and the belief that all Asians are from China is yet another stereotype caused by racism and lack of education on the history of AAPIs). In addition, Asian Americans were being violently attacked by racist strangers. The victim would be peacefully walking by and then randomly punched in the face. And instead of helping these victims, some bystanders record the violent act. The series of hate crimes that took place revealed a huge issue in America and its inability to respect AAPIs.

To conclude, America needs to update its social studies curricula to be more inclusive of AAPIs as its history is the embodiment of its sense of exceptionalism. Additionally, by refusing to acknowledge its blatant history of xenophobia and persecution of people who do not look like white Americans, America is doomed to repeat the racial injustices it has committed previously. Furthermore, the lack of history about AAPIs in the curriculum is truly disheartening. This increases a sense of not belonging for AAPIs and further allows for stereotypes and misconceptions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inability of America to recognize and respect AAPIs reflects its inability to recognize the contributions and resilience of many immigrants. The history of AAPIs must be taught for others to be made aware of these vibrant, innovative, and diverse communities. We must start by incorporating the history of AAPIs into the US curriculum because this curriculum is how many American Students will learn about historical events, so including Asian history will set them up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AAPIs, which will lead to a more harmonious society that respects, celebrates differences.



My Passion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ntayjiah Hamilton(12th)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High School

Korean has always been a language that fascinated me, especially with how it was spoken and written. Now before we go any further, I am not Korean, nor did I even grow up in a Korean-American community. So, I ended up growing up with many people who have always wanted to either go to South Korea and learn Korean, which sparked my interest into wanting to learn it as well. Although I did not live next to the community, it didn't stop me from still wanting to learn the language that sparked my interest. (By the way, I love to learn new languages since it makes me feel amazing about myself.)

When I went to middle school, there were many groups that formed from the increased population of students in the class, who all had a or peaked an interest in Korean culture. With this happening I was able to meet a Korean American and to say I was shocked is an understatement. I was able to expose myself to the language by listening to how the boy communicated to his other Korean friends and even his family.

Furthermore, his family taught me how to introduce myself in Korean. When they taught me how to introduce myself in Korean I was beyond happy because it felt as though I was making them proud with the smiles on their faces.

However, that summer before becoming a freshman in High school in 2013, my aunt in the East coast just happened to become fascinated with Korean Dramas. So, when I went with my family to the beach house to visit all my family there, she showed me the Korean Drama "You're Beautiful." From the day she showed me the first episode, I fell in love with K-Dramas and became an addict for a long time. This also began my journey into K-pop idols and even more K-Dramas. I would sometimes even look up the lyrics for Korean songs in English to understand them better. Surprisingly, I found this fun to figure out, so I actually started to beg my principal to bring Korean as a language in my school.

Eventually, they were able to meet my dreams and bring my amazing Korean Teacher, Lyu seonsaeng-nim. Now, I know most of you guys would not believe me but I was actually able to learn how to say 안녕하세요, which is a formal way of saying Hello to your elders. I love analyzing languages, which is why it was easier for me to learn Korean. I am so thankful that I can take Korean class as a senior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ill be a big part of my life forever.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내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Ella Chen(8th)

P. S. Clara Cardwell School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is rich and diverse, with a long history and a unique perspective on the world. Korean cuisine is delicious and healthy, and Korean music and dance are enjoyed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Korean art is beautiful and unique, and Korean literature is some of the most respected in the world. Korean culture is truly something special.

Korean culture is one of the most unique and diverse in the world. It is a blend of ancient and modern values, beliefs, and practices. Korean society is highly hierarchical, with strict social customs and strict rules about how people should behave. Koreans are very polite and tend to be very efficient in their work. They are also very loyal to their families and friends. Korean culture is often seen as formal and conservative, but it is also very rich and full of life.

Korean language

Korean is the language spoken by most Koreans. Korean has the same root as Mandarin and Japanese, but the structure is different. Korean is also very different from Western languages, so it takes time to learn. There are many courses and programs available for learning Korean.

Korean is a language that originat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is an Altaic language related to Japanese and Mandarin. Korean is very popular around the world, spoken by more than 78 million people. The Korean language has undergone many changes over the centuries, but the natives can still read and write it easily.

Korean student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performance between Korean students and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The difference is not just in grades, but also in the way Korean students respond to challenges. Korean students are generally more motivated and disciplined than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This leads to better classroom performance. Additionally, Korean students often have access to better resources that allow them to better cope with life's challenges.

Korean students are very importa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have brought a host of innovations to the technology, such as developing intelligent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is has contribute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these students will tell us more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an we can imagine.

My feelings about Korean

I enjoy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 find it fascinating an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it. I am still very much a beginner, but I am eager to continue learning and expanding my knowledge. I am grateful for the resources and support available to help me learn. I hope to continue developing my skill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Korean culture is fascinating to me because it is so different from my own. I find the Korean language to be fascinating, and the way that they think about relationships and family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 am used to. I find Korean culture to be fascinating, and I am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I am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I love the food, the music, the language, and the people. I think it is a very rich and beautiful culture, and I am very proud of it.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it and to experience it more.

Korean culture is a fascinating mix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t is a society that is very focused on family, education, and social hierarchy. While some aspects of Korean culture may be unfamiliar to Westerners, others are quite the opposite and can be quite attractive. Overall, Korean culture is an interesting and unique blend that is worth exploring.

I have found Korean to be an interesting and challenging language to learn. Its syllable structure and grammar are quite different from most other languages, which makes it a particularly challenging language to learn. However, I have found the language to be very rewarding and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learn it. I find Korean culture and language fascinating, and I am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my study of both.

I find Korean students to be very hardworking and diligent. They are also very respectful and always willing to listen and learn. I really enjoy working with Korean students and feel that they have a lot to offer. I feel that they are an asset to any classroom or workplace.



Why Must AAPI History Be Part of Our Social Studies Curricula?

Marla Aubourg (11th)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America is often known as a country full of diversity, a vast sea of different cultures. One of them is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or also commonly known as, AAPI. In the United States alone, there are 20.6 million people who identify as Asian,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 alone (not in combination with another race), making up 6.2% of the nation's population (Monte & Shin, 2022).

What would America be without the principles that it's built on, which consist mainly of diversity? That is why AAPI history should be a part of American Social Studies. If we're able to have curriculums based on important issues in history such as slavery, then we should be able to implement AAPI history into the same curriculums. With more knowledge about these communities, then it can lead to a gradual decrease in hate crimes targeting Asian Americans. Since people would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 AAPI community, then there would be less ignorance, negativity, and hate. "The idea is viewed as a possible long-term solution to combat the extraordinary rise in hate crimes targeting Asian Americans s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Giacone, 2022).

This shows that having social studies curriculums with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istory would benefit this community in a very positive and beneficial way. People would be taught and educated about these communities and as a result, they wouldn't have to walk in fear. Fear knowing that any person on the street could pose a threat and/or harm them. Ignorance and lack of knowledge are what most lead to Asian-American hate crimes. The lack of knowledge stems from hate and arrogance toward those part of the AAPI community.

Another reason why AAPI history should be part of social studies curricula is that it can provide a sense of identity for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More often than not, in school history classes we tend to learn more about African-Americans and the Black vs. White narrative. Other cultures and ethnicities such as the AAPI don't get to

share that same “glory.” The history of the AAPI community fails to make its way into American social studies textbooks. “Otherwise, American history focused on white people, which caused Huang to feel “a dissonance between figures that (she) saw in (her) textbooks versus (her) reality. We praise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ll those iconic figures,” she said. “And when it comes to me and selecting my own models and people that I want to be like when I grow up, I always felt disconnected ... like I didn’t know if people like me could do these amazing things.” (Jung, 2022).

This shows that members of the AAPI community feel disconnected from their culture. They feel as though they can’t accomplish grand things that other communities are able to. With the use of AAPI history in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s, children of all backgrounds will feel a sense of belonging. They’ll feel that they’re not alone and have some role models to look up to.

All in all, America the land of dreams, and opportunity is home t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of many different kinds of backgrounds. The diversity of America should be taught more explicitly in schools and with the history of AAPI being taught to children, it would allow a sense of belonging and knowledge. Enough knowledge to not attack a community that makes America what it is today, a diverse place with diverse people.



왜 한국어를 배워요?

Heart Lorraine Joy Diaz(11th)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Old Tappan

During middle school, I never thought I would start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Hangul. Back then, I enjoyed various Korean entertainment, including K-Dramas, TV shows, and especially K-pop. However, I wasn't necessarily fond of continuously reading through the fast-paced, distracting subtitles, and so in informing my Korean friends of my dilemma, they encouraged me to learn the language. In the end, I ultimately decided to start learning it because not only did I feel that it would serve as beneficial to my subtitle problem, but I also believed that it would help me to connect with more of my peers, acknowledging the immensity of the Korean population within Bergen County. Because Korean lessons weren't available to me then, I decided to teach myself Korean by downloading various apps and consistently watching lesson-based videos on YouTube.

My experience in learning Korean by myself was pretty tough because there was no one to correct me when I was wrong. Luckily, by entering high school,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enter authentic Korean classes. However, I felt left out because I was among the few non-Korean students in my class. But I didn't let that bother me, and I reminded myself of the main reasons why I'm in that class and stayed focused.

The first year it started out "not so well" because it was online and it was hard for me to focus since it wasn't in person and I couldn't ask questions to my teacher. But I told myself that it's okay and this is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Now that I'm in my Junior year of high school, I'm currently in Korean 3 and working really hard. My reading and speaking skills really improved a lot. In conclusion, I'm learning Korean because I'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long time now and I strongly believe that learning the language is one of the best ways to get access to that culture.



Why I love Korean Class

Ermy Almonte(8th)

Melrose PS/MS 29, Class 803

I love the Korean language, its phonetics, syntax, and history. I find it fascinating. The more I learn Korean, the more I like it. I am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my language has more in common with languages spoken in the west and Europe, like romance languages. However, it is that very difference that made me fall in love with the Korean Language. It is interesting how Korean created and shaped their language. To me, the Korean language is like no other.

Korean system of writing is called hangul, it was created in the mid fifteenth hundreds. The Korean language did not have letters of their own, so they had to borrow letters from the Japanese. until Sejong the fourth king wrote the letters and made i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The letters are shaped to make the parts of a human: Teeth, tongue, lip and, throat. They also represent three things in life: sky, earth, and human. Continue reading my essay to learn more about studying Korean and its cultu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outh Korea have many things in common, like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has the Statue of Liberty and South Korea has the Statue of Peace in Seoul; but the language is not one of them. It is inevitable for an English speaker not to notice the difference in pronunciation when trying to speak Korean; for instance, when an English speaker says hello, the Korean speaker reply by saying "안녕하세요" (an-neyong-ha-se-yo) they both have the same meaning, but different pronunciations. The English language stretches the word sounds while Koreans just stay on beat.

The difference between English and Korean goes beyond sounds, they also differ in their consonants and vowels. The English vowels are A, E, I, O, U, but the Korean language takes it to another level by using ten vowels. However, The Korean language only has fourteen consonants while the English language has 23. The following are the Koreans basic vowels and how they should be pronounced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eo, yeo, o, yo, u, yu, eu, and i). The Korean language also has rules to follow when

writing that differs from the English language. For Example, a consonant should always go to the left of a vowel when writing horizontally, and on top of a vowel when writing vertically. In the English Language there are no rules for the placement of letters, a vowel can be written before or after a consonant.

The above mentioned are just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English and the Korean language. Thes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letters when writing in Korean, such as ㅏ=U and ㅑ=O might make many new Korean learners believe that learning Korean is difficult. And because even if you do understand the pronunciation, the syllables may seem hard to understand. For example, some might be confused with the connectors which sometimes can be very lengthy compared to the English language. From an English speaker point of view, it would take more letters to write the same sentence in Korean. These might make a new student of Korean feel confused or puzzled at the beginning. But then, everything starts to make sense, and the desire for learning more of it just increases.



Korea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 Learner

Luisa Martínez(8th)

Melrose Psms29

Learning Korean gives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explore the Country and experience many things they discover, such as Religion, Cuisine, Literature & Arts, and Sports, it influences them, but how does it also impact my Life as a new learner?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as shared and recorded as the legacy of Korea for decades and has been expressing various parts of the Culture being unique, meaningful, and with values within Korean history. I'm a student from Psms29 with no plans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n the past, I had only thought about studying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nce I took a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 taught by a Korean teacher. Then, as a result of my visits to Korean restaurants in NYC, I became mo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One of the parts that Influenced my Life to Learn about Korea is their Cultural Clothing. Hanbok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fashion styles in the Country and has been beloved for many decades in history. The Cultural Clothing Hanbok with vibrant colors and pleasing color expresses its beauty. Hanbok is as semi-formal or formal during traditional festivals and celebrations. Hanbok has various types of beauty, known as the eight beauties of hanbok, such as Form, Creativity, Harmony, Color, Nature, Empty Space, and Character. Hanbok is stunning as a Cultural Clothing that still exists for celebrations after decades. As a learner, I had been curious about their Cultural Clothing, Hanbok. I wanted to try it and look beautiful and also value it. Hanbok Influenced my Life to try out stuff In Korea and understand the reasons to treasure their Culture.

Another part that influenced my Life while learning about Korea is their National Language. In 1443, King Sejong, one of the greatest rulers of all time, created the Korean language, Hangeul. It is beneficial for learners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interact with others in Korea, knowing the Korean language is a great way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songs, places, and shows. Hangeul is easy to learn. Once I have mastered the basics, picking up basic phrases will be easy. Within a

short time, I'll be able to follow conversations in Korea in real-time. The ability to speak the language also helps me understand what people are saying, interact with others who speak the same language, and impact my Life to master the language.

The last part that influenced my Life to Understand Korea is its Cultural Cuisine, especially the National dish, Kimchi. The container is an adult-tasting one that blends pickled veggies with garlic and tangy-salty spices. Adding chili peppers gives it zest, tang, and salt. Kimchi comes in different styles. Kimchi is also known for being extremely healthy with protein and nutrients, helping the body improve. Another part is their Culture, like spicy food, which is said to relieve stress when sweating and decrease depression. Korean Cultural Cuisine is unique in its way, with types of spices, ingredients, and flavors put into making it delicious. Shows Korean Cuisine influenced my Life to taste and appreciate their food differently.

In Conclusion, learning abou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fluenced my Life to visit their Country and explore many things. Three parts that mainly impacted my Life were Cultural Clothing,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isine. Hanbok with various types of beauty and bright colors. The language Hangul helps to interact with Koreans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The food to have a great time tasting is a mixture of spices. As a Learner, visiting Korea is a good plan for Learners like me to have a great experience. It impacted me to be motivated me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its dedication to loving their Culture.



Why I Study Korean

Alexandria Lee (12th)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Demarest

From a young age I always had an interest in learning new languages. My first languages are English and Colombian Spanish. Which I learned through my family and children's television shows such as "Sesame Street" in both languages. I also learned the basics of Mandarin Chinese in preschool. Since then I started bouncing around and trying to learn new languages, but I struggled to commit to learning just one. It wasn't until I was in the second grade I met a set of twins who introduced me to their language and culture, which was Korean. They showed me the popular media they grew up with, their celebrations, and their cuisine. I admired it all and wanted to learn more about it.

By the time I was in middle school I started to learn the absolute basics of the Korean language. But both myself and my friends unfortunately split ways and moved around the same time. My friends moved back to South Korea whilst I moved back to New Jersey. Despite this, it all worked out in my favor when it came to learning more about the language and culture. The area I moved to not only had a huge Colombian population which I love to participate in, but also Korean. My new Korean friends are the reason why I decided to continue to learn Korean once I reached high school. I discovered that my high school offered a Korean language program and despite my parents pushing for me to take Spanish due to my prior knowledge. I decided to take on the challenge and learn a completely new language, and have it be one of my main focuses.

Once I reached high school I fell in love with learning about the culture and language. It was something new and refreshing. But I also had many resources around me to practice and actually use the language. I was able to learn it in an academic setting, practice my speaking and texting skills with my friends, but also I started to consume more Korean pop culture and media.

Many people started to tell me about study abroad programs once I reached College



which I was very interested in. I had developed a new goal for myself. I learned Korean so I could not only travel to South Korea but also so I could say I was trilingual. I became set on this idea. Thinking of ways and looking into programs that I could use to travel. My friends and teachers encouraged me with this. Helping me practice and supporting me when I struggled with particular parts of the language.

I not only loved to learn about the language and fantasize about traveling to a new country. But I also got closer with my friends by learning the language. We started to share our cultures more. I helped my friends with their Spanish courses while they helped me with my Korean course. We would share our cultural dishes and talk about cultural events happening in our lives. This all really pushed me to continue studying the language throughout high school. Even now as I look into my future, many of the Universities I'm applying to or planning to apply to offer Korean language programs. Which I am very excited to hopefully partake in.

But overall I cannot really narrow down my reason to study Korean to one simple thing. I study Korean for my personal love for learning languages, my interest in Korean Media, my love for participating in new cultures that surround my life, connecting with my friends who share their identity and culture with me to which I share my culture with them, but also just for the fun of it. That is why I study Korean.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나의 꿈

Jason Hur (12th)

Palisades Park High School

형과 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 제가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희가 더 넓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다시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제를 미국 캘리포니아로 보내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저는 형과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던 날 공항에서와 비행기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내내 소리 내어 울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막 십대를 시작한 형은 모든 것을 새로운 모험으로 여겼지만 저는 겨우 열 살이었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캘리포니아 한인타운과는 아주 먼 시골 동네였습니다. 도시와도 멀어서 한국인들이 매우 적은 동네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못하고 새로운 서양 문화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도움과 저도 덕분에 결국 미국에 적응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후, 제가 미국 중학교를 입학할 때 즈음에 규모가 더 큰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만났고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무렵 저는 미국 문화에 많이 적응된 상태였고 몇몇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형하고 한국어로 대화했다면 이제는 영어로 대화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고 한국어를 쓸 곳이 별로 없어 맞춤법이나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저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기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에는 한인 교회와 식당이 많고 한인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요리를 오랜만에 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교 과목 중 하나가 한국어가 있어서 9학년부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탈리아어나 스페니쉬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었지만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은 저의 콤플렉스 중 하나였고, 꼭 기회가 있다면 한국어를 다시 정확히 배우고 싶었던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기회에 저는 별 고민 없이 한국어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한국어반 행사 중 하나인,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주최 '한글날 기념 고교 백일장 대회'에서 한국어로 수필을 써서 4등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외모도 한국인이고 피도 한국인의 피가 돌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한국인일까요? 저는 한국어를 더 배워 몇 년 후에는 한국 군대를 가서 당당하게 내 나라를 지키는 게 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안 가도 되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쓰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저도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반에서는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워가며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정확히 배우고 익혀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는 한국어 외교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꿈을 꾸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양쪽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Korean-American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장학금까지 주시면서 제 꿈을 응원해 주시는 미주한국어재단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반 개설 및 수강 학생 현황

(2022년 9월 학기 현황)

주명	교사	학교	학급 및 학생 수
뉴저지	황정숙(1기)	Palisade Park Jr/Sr High School	5학급 95명
	이명진(2기)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Old Tappan	3학급 73명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Demarest	2학급 37명
	허영재(7기)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Old Tappan	3학급 38명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Demarest	3학급 44명
	김성미(3기)	Fort Lee High School	6학급 148명
	이진영(3기)	Rutgers University	2학급 35명
	장경은(3기)	Rutgers University	1학급 18명
	임선희(3기)	Empowerment Academy Charter School	8학급 187명
	류경자(6기)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High School	5학급 73명
이범숙(6기)	Lindbergh Elementary School	10학급 227명	
	Palisades Park Jr/Sr High School	4학급 110명	
	Ridgefield Memorial High School	4학급 76명	
뉴욕	김수진(4기)	Democracy Prep Harlem H.S.	4학급 100명
	최경선(4기)	Democracy Prep Public School	5학급 140명
	임지민(7기)	Bronx Prep High School	5학급 95명
	강리아 (기타)	Democracy Prep Public School	Korean Curriculum & instruction specialist
	이민영 (6기)	South Bronx Academy Applied Media	4학급 103명
		Melrose School (PS/MS 29)	4학급 100명
	김지연 (7기)	Columbia University	1학급 9명
	박설희 (7기)	The New School College	1학급 18명
	이은주 (7기)	Mott Hall III Middle School	8학급 230명
	안현주 (7기)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4학급 140명
	장 그레이스 (7기)	School of Earth Exploration and Discovery(SEED) Harlem	8학급 127명
	안금주(8기)	P.S. 308 Clara Cardwell School	8학급 149명
	김소라 (기타)	Syosset High School	4학급 53명
Syosset Thompson Middle School		2학급 36명	
시카고	박찬미 (2기)	Sawyer Elementary School (PK-8)	17학급 467명
	Lucy Ko (기타)	William Howard Taft High School	1학급 31명
총	24명	27개 학교	146학급 2,938명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류정자 교사 (6기)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High School, NJ

패터슨 차터 고등학교에 근무한 지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패터슨 차터 고등학교는 6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0%는 남미계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이다. 교사와 학생 전체를 통틀어 한국사람은 나 한 명이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 5년 동안 근무했던 한인은행을 그만두고 보조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다려 왔던 자리인가. 한국어 교사를 뽑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고, 인터뷰에 합격해서 근무할 학교가 생기다니 정말 기뻐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9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내가 일 년 동안 그만두지 않고 이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었다. 주말엔 지도안을 짜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학습지를 다 만들어 놓아도 매일 저녁마다 또 할 일이 생겼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들,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한국어 교사가 된 기쁨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중간중간 잠까지 깼다.

또,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순간순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외로움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난 지금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기쁘고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문화와 인종이 다른 나의 학생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 미주 한국어 재단 임원진들의 격려, 선배 선생님들의 조언,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 덕분이다. 작은 한국처럼 꾸민 내 교실이 있다는 것, 100% 비한국계 학생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한국어 수업을 기대한다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 내 앞에서 자신의 한국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해 준다.

유난히 깨진 가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우리 학교.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순간순간 감사하다. 자신을 소개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에 N이라는 학생이 I hate my life(저는 삶을 싫어해요)라는 글을 썼다. 다른 학생들은 '저는 학교를 싫어해요. 저는 벌레를 싫어해요.' 라는 글을 쓸 때 이 학생은 '저는 삶을 싫어해요.' 라는 글을 쓴 것이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마침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만나자마자 칭찬부터 해 주었다. '와, 네 자켓 진짜 쿨하다. 너의 글을 보았어. 솔직해서 좋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으니 어깨를 그냥 들썩인다. '선생님이 백투스쿨 나잇에 너의 엄마를 봤잖아. 너의 엄마 진짜 좋은 엄마시더라.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네 여동생의 멋진 오빠야. 그리고 너는 나의 똑똑하고 멋진 학생이야.' '진짜요?' 라고 묻길래 '진짜!' 라고 대답해주니 그 학생

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가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여서 이 아이의 언어를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며 한국 발전의 힘은 교육과 열정에 있다고 가르친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나눌 때에는 벅찬 감격이 올라온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정신을 배우게 하고 싶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도 너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

한국에서 교사를 할 때도 또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막 시작한 지금도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고민과 아픔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그 학생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십대에 칭찬과 용기의 말 한마디로 인해 그 학생의 삶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다면, 그 학생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체가 '빛나는 교사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9월달에 나에게 가끔 던졌던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나는 한국어 교사,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 오늘도 나는 이곳, 나의 학교에 나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있다.





한국어 교사로 준비되고 한국어 교사로 살기



이민영 교사 (6기)

South Bronx Academy Applied Media, Melrose School (PS/MS 29)

한국어교사로 준비하기

늦은 나이에 넷째를 출산하고 그 넷째가 프리킨더를 갈 즈음에 미주한국어재단을 만나서 한국어 교사로 준비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우연치 않게 재단의 한국어 교사양성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그것이 장학생 지원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장학생 6기로 선발이 되었다. 그리고 2019년 가을에 퀸즈칼리지에 입학하였다. 당시 사춘기 세 명의 아이들과 늦둥이가 있었고 늦에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밤에 수업을 들으며 과제 제출과 교생실습을 병행하며 과목을 하나하나씩 이수해 갔다. 공부도 쉽지 않았고 나의 서툰 영어와 문화와 세대가 다른 중등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 결국 결승선에 도착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평범한 교훈을 떠올렸다. '나는 토끼를 이길 필요도 없고 다만 결승선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며 마지막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천천히 기어갔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드디어 2021년 6월에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8월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브롱스에 있는 두 개의 중학교에서 8학년 200여 명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한국어 교사로 살기

새벽 3, 4시에 기상하여 못다한 수업 준비와 식사를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6시 40분에 기차를 타고 브롱스의 한 역에 내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깨어진 유리조각과 수거를 기다리는 쓰레기를 지나 학교에 도착하면서 일과가 시작된다. '띠리링' 학교 종소리가 울리면 카트를 밀고 바쁜 걸음으로 교실을 향한다. 한국어반은 교실이 따로 없어서 수업에 필요한 프린트물과 문구류들을 카트에 싣고 교실마다 이동해야 한다. 학생들도 다음 교실을 찾아 복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여기가 미국의 중학교의 복도인가 순간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넨다. 그중에 내가 가르치는 8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제법 있고 동료 교사들도 있다. 간혹 내 오피스에 들어와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싶다는 6, 7학년 학생들도 있는 걸로 보니 한국어반이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은 펜데믹 이후 1년 반만에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서 학교 생활 적응에 무척 힘들어했고 교직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가장 힘든 해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새내기 교

사인 나는 정말 쉽지 않았다. 두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것이 무척 어려웠고 그들은 동양인 선생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했다. 첫날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은 한류로 인해 한국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몇 학생들은 내 발음에 키득거리며 웃고 수업을 방해하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따지듯이 물었다. 결국 그 학생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교실을 뛰쳐나가다가 교무실로 불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간혹 날씨가 좋지 않거나 나쁜 오후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곧잘 주먹질을 하며 싸우기도 한다. 지난번에 그런 학생들을 말리다가 내가 맞을 뻔한 상황도 있었다. 내 전화기가 분실되기도 했고 예쁘고 특이한 물건들은 어느새 사라지기도 한다. 정말 수업 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떠들며 내 속을 태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작년에는 인근 학군에서 총기 문제가 있어서 경찰들이 학교에 들어와 등교하는 학생들의 가방을 검열했던 경우도 있었고, 몇 달 전에는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어 학교 건물이 봉쇄되어 퇴근이 늦어지는 때도 있었다.

두 개의 학교에 150여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나를 포함해서 아시안은 3명이 있다.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내 수업에 자주 들어와 수업을 참관하셨다. 간혹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동료들도 있었다. 이럴 때는 선배 교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찾아 나갔다. 학교에 도착하면 같은 학년 선생님들 교실을 찾아가 먼저 인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기도 했다. 다행히 멘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했다.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는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많은 학생들이 결손 가정이고, 부모님들이 마약과 범죄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코로나로 부모님을 잃은 학생들도 있다. 가정 교육의 부재가 학생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고 학습 훈련이 되지 않았고 집중력이 길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African American이고 Hispanic 이다. 천성적으로 몸으로 리듬을 느끼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들은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그래서 수업에서 K-Pop이나 동요 혹은 드라마를 이용한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전부 노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몇몇 학생들은 잊어버리고 와서 개가 먹었다고 다시 달라고 하고 시간마다 연필이며 지우개를 달라고 한다. 가끔씩 나를 정말 힘들게 하여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니 그들이 가족들과 가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짐작이 가서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쁜 말, 희망의 말을 더 들려주고 그 말들을 가르친다. 또한 학교에서 끌어안아 주는 것은 안되지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예쁘다고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간식도 사오고 작지만 선물도 해준다. '안녕하세요'를 가르친 후 처음 가르친 단어가 '사랑해요'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안녕하세요'와 '사랑해요'라고 말한다. 그들이 사랑스럽다. 학생들의 가정과 상황을 이해하니 학교에 와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고맙고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니 수업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어 갔다.

작년에 세 번째 단원을 한국의 설날과 연계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한국의 설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명절을 지내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설날의 연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열두 띠, 한국의

상징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름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하게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바람을 담아 연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배운 한국어 표현으로 자신이 만든 연에 대한 설명을 Flipgrid에 녹음한 후 Flipgrid의 바코드를 연에 부착하게 했다. 그동안의 학습 결과물을 모아 전시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8개 부스(한글 붓글씨 쓰기, 연 꾸미기, 한복 체험하기, 투호, 제기차기, 태극기, 젓가락 연습하기, 딱지 치기)를 마련하여 8학년들이 전교생에게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카니발 형식의 한국 문화 행사를 가졌다. 그 행사에 한국어반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단원과 자기 연을 소개하는 스피치, 한국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전교생을 위한 goody bag을 만들어서 배부했다. 감사하게도 두 개의 학교에서 한국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문화 행사가 끝난 후 한동안 한국 문화로 학교가 들썩었고 한국어 수업을 다른 학년에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두 학교에서 우수 교사로 선정되었고, 동료 교사들도 전과 다르게 나를 대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첫 일년을 무사히 마쳤다.

인생의 후반전에 엄마와 사모 외에 다른 이름 하나, 한국어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교사의 삶을 접고 미국에 왔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미주한국어재단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의 길을 열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장학금은 한국어 교사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얼마 전 졸업생이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고 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들은 중학교 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행운이었다고 말을 한다. 일주일에 2-3시간씩 배워서 아이들은 한국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먹었던 한국음식과 입었던 한복과 수업 시간에 했던 한국의 놀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한국어 교사이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는 문화 대사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큰 보람을 느낀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 비한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할 수 있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업 내용, 수업 준비물뿐만 아니라 나의 언행, 가능한 옷차림에도 신경을 쓴다.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소양과 인격을 갖추어 미국에서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을 소개해 주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명의 아이를 낳아 가슴에 품어 키웠듯이 상처가 있고 어려운 내 학생들을 보듬어 1년 동안 즐겁고 의미 있는 한국어 수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SEED Harlem에서 늦깎이의 새로운 도전



장 그레이스 교사

School of Earth Exploration and Discovery(SEED) Harlem

매일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아직 바깥은 여전히 캄캄한데 막내와 집을 나서기 바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막내에게 이른 시간인 걸 알지만 일찍 나가야 주차가 조금 수월하다 달래가며 집을 나서는데, 제 1 직장도 잘 해결해야 제 2 직장인 학교 가는 길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겠지요.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에 15분 거리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이 지체된 학생들을 도와 주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교장 교감보다 퇴근을 늦게 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보통 때는 정해진 일만 해 내면 정신적으로 편하기도 하고 은퇴도 보장되었습니다. 보직을 신청할 경우, 재정적으로는 교사 못지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사무직을 그만두고, 한국어 교사가 된 것은 마음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일이 훨씬 힘든 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칠 수 없었던 그 기도는 결국에 저를 교직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임한 첫 몇 주 동안, 학생들은 한 번도 배워 보지 못한 새로운 이 동양 언어 한국어에 대해 반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반짝이는 눈과 마음으로 신고식을 잘 해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토요일에는 한국어반을 관리할 때는,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후무했지만. 지금은 BTS와 오징어 게임 등의 인기로 인해 학생들이 좀 더 친근하게 대해 줍니다. 고마운 마음에 마침 추석이 되어 한과와 과자를 나눠 먹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단히 맛있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더 먹을 수 있냐고 물어 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반짝이던 호기심이 사라지고 수업이 일상이 되자 건너가야 할 걸림돌이 많습니다. 8개의 다른 반을 가르치니 학생들을 하나 하나 기억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곳에서의 한국어 교사로서의 하루는 단단한 얼음위를 지나다 미끄러 지기도 하고 얼음이 깨져 아주 차가운 물에 빠져 헤엄쳐 나와 다시 말리고 다음 수업을 해 나가고, 다음 날 다시 나가 하루를 이어 갑니다. 조미경 사무총장님의 적절한 말씀처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험난한 차터 고등학교에서도 장시간의 근무와 계속되는 코칭과 빈틈 없는 레슨 플랜을 제출해야 했지만 다행히 하루도 결근 없이 마무리 했는데 이 할렘의 중학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3-4년의 학업 성취도가 낮습니다. 6개 유용한 표현을 그림과 매치하는 것도 간단한 한옥집 만들기도 거의 옆에서 일일이 도와 줘야 하니, '나름 제 때에 필요한 교육을 집에서 못 받아서 기본적인 것도 도전적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 장애가 있거나 개인 학습 계획을 보조교사와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보조교사를 통해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개인에게 맞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보조 교사가 결석하거나 부족하기라도 한 날에는 학생들이 자기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수업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친한 친구들이 많으니 개인사를 수업 시간에 가져와 갑자기 서로 다룰 때는 여기가 동네 운동장인가 하고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는 영어를 모르고 이민 와서 5-6학년에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여 스토니브룩대 수석 졸업, 중학교 수석과 고등학교 차석한 학생들의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지금 이 중학교부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아이비리그에 간 학생들의 얘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00명 넘는 학생들을 강의할 때 보다, 각 반에 많아야 30여 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힘들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 이름의 약자인 SEED처럼 한국어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이 깊습니다.

할 일이 많고, 교만해 질 때는 초심의 간절함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보고 체력도 조절해 보고 버티어 봅니다. 시작이 잘 되게 도와 주신 조 미경 사무총장님의 조언을 다시 되새겨 보고 지쳐가는 마음도 다잡아 봅니다. 이 선근 회장님의 한글 사랑도 힘이 많이 되어줍니다.

첫 해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도 저를 일으키는 큰 힘입니다. 저에게 9월에는 가르치기보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도록 영화 보여주기 등, 재미 위주로 호감을 갖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참 고마웠습니다. 할렘 중학교에서 아주 용감하게 한국어를 채택해 주시고 지혜로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한아름에서 장도 보시고, 제 책상에 저를 위해 몰래 믹스 커피를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교장선생님을 위해, 한국어를 유난히 좋아하는 한 특수반 학생에게 한국어반이 있게 된 건 교장선생님의 덕이니 교장선생님의 이름을 한글 붓글씨로 써 드리자 하니 흔쾌히 하더군요. 감동한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안아 주고 본인 책상에 그 붓글씨를 붙여 두셨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이 학생이 교실에 있지 못할 때는 교장실에 오게 해 사탕도 주시고, 좀 쉬다 교실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통한 교장 선생님과 작은 소통으로 인해 이 학생은 한국어반 중간평가에서 백점이라는 성취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가장 성실히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끝내고, 한글을 자음과 모음을 전화기를 보고 혼자 적곤 했습니다. 보조 교사의 말에 의하면, 이 학생은 할머니와 사는데

늘 풀어 주셔서 정서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하루,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 보람의 열매들이 저를 위로해줍니다. 한 부모님은 2년 동안 제2 외국어가 없었는데 이 한국어반을 통해서 자녀가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십니다. 모든 반에서 전화기 붙들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부모에게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니 집에 와서 한국어반의 모든 것을 항상 얘기해 준다고 한다는 말에 의아하면서도 참 기특합니다. 어떤 특수반 8학년 학생은 저에게 '과자'라고 혼자 배워와 말해 주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ADHD장애로 학교가 떠나가라 복도에서 소리치던 한7학년 학생을 학교에서는 전학시키려 하는데 쇼셜 워커와 디스트릭트 감독관에게 가장 좋아하는 반이 한국어이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한국어를 욕하던 이 학생의 반전의 답에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 학생이 칠판에 'Korean is Fun' 이라고 칠판에 적어 뒀습니다. 어떤 8학년 특수반 학생은 저에게 '과자'라고 혼자 배워와 말해 주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7학년 특수반 학생은 수업 시간마다 복도에 나가서 건다 들어 와도 되겠냐고 묻고, 오후 시간에는 피곤해서 엎드려 자더니 비디오로 복습 시키고 퀴즈 두 개의 결과는 정규반 아이들도 만점을 못 받은 만점을 다 받았을 때는, 제가 키운 자식이 만점을 받은 듯 기뻐하며 보조 교사들에게 마구 자랑도 하였습니다. 어제는 7학년 한 학생이 블랙 핑크의 'Shut Down'을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블랙 핑크 못지 않는 댄스 실력으로 보여 주어서 녹화도 해서 직원들과도 공유하려 합니다.

한국어반을 기다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성실한 학생들 때문에 수업 시간이 설레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간간이 미국 사탕도 주고 칭찬해 줬지만 최근에는 행동이 바르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생들에게 한국에 계시는 고모부님(한국어 스티커 찾으시려 자갈치 시장까지 가심)께서 사시고 남편 친구 아시아나 기장을 통해 전달 받은 한국산 껌과 사탕을 칭찬이 적힌 쪽지와 함께 상으로 줬더니 제 학생들에게 대박입니다. 이런 걸 더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이 그 풍선 껌을 굉장히 좋아하고 못 받은 학생들의 후회가 막심합니다. 풍선껌 하나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한 글자도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한글 소리 차트를 보고 자기 이름 쓰기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름을 쓰면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영화에서 '나는 소중한다'를 배울 땐 그 문장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어디에 쓸 수가 있냐고 묻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땐 한국어가 중국어와 일본어의 다리가 되고, 다른 경험이 된다고 말해 줍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한국의 특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개개인을 대하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급급해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발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듯 하여 마음을 내려 놓습니다.

오늘도 살얼음 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다른 반 학생들에게 '나는 소중한다'는 문장을 가르쳐봅니다.



소망을 꽃 피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9기 장학생 이경주

2015년, 우연한 기회에 출석하던 교회의 한국학교에서 우리 2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학교에 보내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혼란을 겪지 않고 자라는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에, 한국학교 봉사는 제게는 단순한 한글 가르치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달리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면에서 기존 한국학교나 교사에게도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시작한 봉사였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과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별개라, 교사도 열정과 더불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학교도 제대로 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2세 아이들과 외국인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 일이므로, 영어도 한국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사 편입을 하여 영어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은 남달랐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할 개인적인 많은 일들, 저희 아이들의 입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 망중, 체력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고비고비를 넘겨가며 공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과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저 자신의 현재를 알고 앞으로 걸어 나갈 방향을 찾아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더 알려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특히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면서 K-pop에 이어 K-드라마나 영화 등 많은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나 애플 티브이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역사 캠프나 각종 학술대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한국학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규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미국 정규 교육과정에서 '아시아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미국의 정규 학교에 한국어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아직 중국어나 일본어 클래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져, 작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수준 높은 K-Spirit이 미국 땅에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ESL처럼 KSL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규 학교 현장에서 소망을 현실로 이뤄가시는 많은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을 보며 저 또한 부족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시 채우고 노력하며 그 소망을 꽃피우는 작은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어려운 길, 꿈을 이뤄가도록 지원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미주 한국어재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위원회 자료

2021~2022년도 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교과과정연구위원회 활동보고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교과과정연구회 **박찬미**

미주한국어재단은 뉴욕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한국어교과과정연구회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를 구성하여 지난 2017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연구위원들은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와 각 주 교육국의 World Language Standards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 교수법, 학습 활동과 자료,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모색, 정리해왔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5차 연구위원회에서는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Novice High 에서 Intermediate Mid Level에 해당하는 Korean 2 교과과정을 수립하였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4학기 학제에 맞추어 4개의 단원을 주제론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각 단원에는 2개의 하부 Topic을 두어 각각 어휘와 표현, 필수 문법 사항과 이를 지도하기 위한 학습 활동, 교사용 참고 자료, 그리고 학습 주제와 연관된 문화 소개 항목을 두어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의 문서와 출판 형태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교사들과의 빠른 공유와 교사들의 feedback을 실시간으로 받아 바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Google platform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제5차 연구위원회는 Korean 2 커리큘럼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 주제로 제기되었던 '한국어 동사활용'과 '조사'를 주제로 2번의 워크숍을 4월 30일과 9월 24일에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그동안 연구위원들이 연구하고 축적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참여 교사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신임 교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5월 21일, 제33차 국제한국어문화학회에서 <World Language Korean Teacher의 시각에서 본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오경숙 교수와 한국어교과과정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로 한국어 교사의 정체성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미국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교육자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다.

2023년 제6차 한국어교과과정위원회의 연구 과제는 Intermediate High에서 Advanced Mid에 해당하는 Korean 3 교과 과정 개발이다. 이를 위해 8번의 정기 연구 모임과 2번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워크숍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워크숍은 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미 전역의 교사들과 공유하는 기회임과 동시에 당면한 연구 주제를 매개로 교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연구 방향과 방법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연구위원회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연구위원 개인의 현장을 넘어 다른 교사들과 소통하며 한국어 교육의 현실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

연구위원회로서는 교사들과의 밀도 있는 만남을 위해 워크숍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나, 아쉽게도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이 두 번의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New York State Korean Alphabet Day

훈민정음 반포 576돌 한글날 기념 행사 보고

미주한국어재단 부회장 **홍태명**

세종대왕께서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5년이 되는 2021년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21년 10월 9일을 뉴욕주에서의 한글날로 선포하였고,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에게 공동 진행 단체들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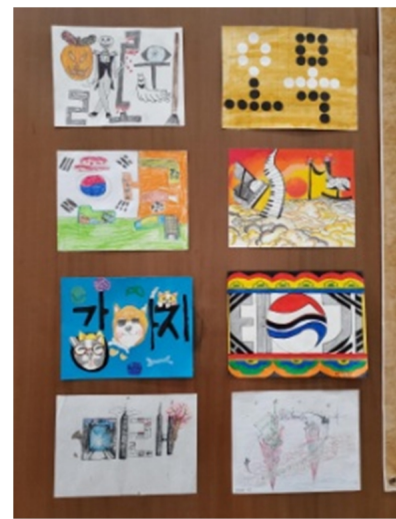
2022년 10월 9일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제6회 한글날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번 한글날 기념식은 미주한국어재단,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뉴욕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학생, 학부모, 한국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홍태명 미주한국어재단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광호 한글날 행사준비위원장의 환영사와 미주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의 기념사로 그 의미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최현승 뉴욕한국문화원 홍보관의 축사에 이어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강성방 회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이 이제는 세계 속의 한글로 뻗어나가는 이 즈음에 뜻깊은 한글날 행사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해서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많은 미주한국어재단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은 한글날 노래를 청중들과 함께 제창해 감동을 전달했고, 푸른겨레 한국학교 풍물패인 '터,울림'은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순서에서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연했고, 최경선 선생님의 사회로 골든벨 방식의 한글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한글 과거시험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글에 대해 생각해 보며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한글사랑' 글자, 그림 공모전에는 167명의 학생이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였다. 특별히 한글날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글로벌 미용 기업 키스(KISS PRODUCTS, IN)와 예당(김정광 사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미주한국어재단 임원 및 이사진

(BOD & Executive Officers)

BOARD OF DIRECTORS

Chairman of the Board Dr. Yung Duk Kim
Vice Chairman of the Board Mike Kim

Directors

Bong Won Yeon, Esq Jong Won Park, Esq Kwang Ho Lee Mikyong Cho
Myung Keun Oh Young Cho Hu Nam Nam Bae Tae Sup

Cooperative Directors

Chung Kong Rhee Do H. Chung Edward Kang Henry H.S. Kang Hoon Yang
Hyun Chun In S. Chung Yung Ho Choi Joong K. Min Jung kil Shin
Kyung H Lee Kyung T. Son Tae J. Kwon Tae kyung Yoon Young In Chung

Advisory Board

Dr. Andrew Rose Dr. Vivian Rose Dr. Han J. Choi Dr. Stuart Weinberg Hearn Chun
John Shin Kyun Won Min Song H. Kim Samuel Lee

Executive Officers & Committee

President: Dr. Sun Gun Lee
Vice President: Robert Lee, Tae Myung Hong, CPA
Secretary General: Mikyung Cho
AP Korean Committee Chair: Kwang Ho Lee
Teachers Committee Chair: Mikyong Cho
Korean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Chair: Chan Mee Park
Professional Education Committee Chair: Jane Cho(Hwang)
Fund Raising Committee Chair: Kyoungja Cho
Legal Committee: Jong Won Park, Esq.
Internal Auditor: Jong won Park, Esq

Publication: Yun Oh Treasurer: Young Lee Public Relation: Eunjoo Yi
Webmaster: Seungho Choo Recording Secretary: Jiyeon Kim

Members

Myung Jin Lee, Chanmee Park Chung, Julia Kang, SeonHee Lim, Seongmi Kim,
Kyoungun Jang, Jin Young Lee, Soo Jin Kim, Kyoung Sun Choe, Ji Won Lee, Jiyeon Park,
Sean Ji, Miyoung Seol, Junghee Won, Yeon SuKil, Bumsook Lee, Min Young Lee,
Kyoungja Lyu, Young JaeHur, Hyun Ju Ahn, Jimin Lim, Gieun Lee, SeolHee Park,
Jin Young Kwon, Jiyeon Kim, Myung S. Min, Grace Jang, Sora Kim, Kum Ju Ahn, Ji Eun Yi,
Young Lee, Rachel Kim, Lucy Ko, Jane Lee, Jaewoo Jung



- 2007**

 - 08/03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결성
이광규 박사 초청 강연회
 - 10/20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총회 (장소: 뉴욕한국문화원)
공동회장: 김영덕, 이세목, 이광호 | 사무총장: 이선근 | 후원회장: 서진형

- 2008**

 - 01/05 한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연회 (장소: 뉴욕 대동연회장)
-02/02 강사: Danny K. Chun, Mayor Jun Choi, Anchor Juju Jang, Bill Hwang, 이광규 박사
 - 03/05 미국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초청 간담회
- 한국어 교사 양성 사업 및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 04/23 Rutgers대학교 - 공립학교 한국어교사 자격증 과정 개설 합의
 - 05/07 New York대학교-한국어 교육학과 개설 요청
 - 08/01 제1기 장학생 선발: 김지선, 원지영, 이지선, 조미경, 황정숙
 - 11/28 제1회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 (강사: 이종숙, 이선근, 이현규, 이정혜, 이지선, 조미경)

- 2009**

 - 12/07 한국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지원 요청 및 2010년 교육부 예산 반영 합의
한국브랜드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예방
한국 출장: 김영덕 회장, 이선근 사무총장, 이광규 고문

- 2010**

 - 01/09 제2회 정기총회, 제2대 회장단 선출 (장소: 뉴저지 품림연회장)
공동회장: 김영덕, 이광호 사무총장: 이선근
 - 03/01 뉴저지 최초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황정숙(1기)
 - 04/01 뉴저지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원지영(1기)
 - 04/15 NJ Palisades Park 고등학교 2년간 교사 급여 지원 한국어반 개설 결정
 - 05/07 NJ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 전개
-18
 - 05/20 NJ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제1차 동포 후원금 및
한국정부 지원금 전달
 - 09/08 NJ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 교사 황정숙(1기)

-
- 2011 ● 08/01 NJ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제2차 동포 후원금 및 한국정부 지원금 전달
- 08/07 - 08 NJ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한국어반 2011학년도 개설 합의
NJ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 전개 및 동포 후원금 및 한국정부 지원금 전달
- 09/05 NJ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강 - 교사: 원지영(1기)
- 10/25 High School of Language & Innovation (Bronx, NY) 한국어반 사물놀이 세트 기증 - 교사 조미경(1기)
- 12/05 제1차 교사양성 기금 모금 및 후원자 감사 만찬회 (장소: 뉴저지 퐁림연회장)
-
- 2012 ● 08/30 제2차 교사양성 기금 모금의 밤 개최 및 후원자 감사 만찬회 (장소: 뉴저지 퐁림연회장)
감사패 및 NJ Bergen County 공로패 수여-이광호 초대 공동회장
- 09/10 NJ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사물놀이 세트 기증 (재외동포재단 제공)
- 11/13 International Leadership Charter School (Bronx, NY) 한국어 반 사물놀이 세트 기증
-
- 2013 ● 04/04 특별 장학금 지원: 장학생 강리아
- 04/13 제3회 정기총회 -명칭 변경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를 한국어정규과목추진회로 명칭 변경
- 10/24 장학생 선발: 박찬미, 이명진
- 11/09 제3차 교사양성 기금 모금의 밤 개최 (장소: NJ 나비 박물관)
-
- 2014 ● 05/01 제4차 교사양성 기금 모금의 밤 개최 (장소: NJ 나비 박물관)
- 06/23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 박근혜) 수여 - 이광호 전 공동회장
- 10/08 외국인 백일장 및 말하기 대회 후원
주최: 뉴욕한국문화원/한국문화연구재단, 후원: 국립국어원/세종학당
-
- 2015 ● 01/12 제3기 장학생 선발: 김성미, 김희성, 백승희, 이진영, 임선희, 장경은
- 03/06 뉴저지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 박찬미(2기), 이명진(2기)
- 05/07 교사양성 기금모금의 밤 개최 (장소: NJ 나비박물관)
- 09/01 Old Tappan 고등학교, Demarest 고등학교 - 한국어반 개설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District) - 교사 이명진(2기)
- 09/01 Lindbergh 초등학교(Palisades Park School District) 한국어반 개설
- 교사 박찬미(2기)

- 2016 ● 01/10 제4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장소: 뉴저지 풀림연회장)
 단체 이름 변경: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를 미주한국어재단 (Korean Language foundation Inc.)으로 변경
 정이사, 후원이사 영입 및 자문위원회 조직 결정
 임원진 선출
 공동회장: 김영덕 박사, 이선근 박사 / 사무총장: 홍태명 / 교사위원장: 황정숙
 한국어반 개설위원장: 김경화 / 정기포럼 위원장: 이현규 / 장기발전 위원장: 조미경
 기금모금 위원장: 광인아 / 서기: 박찬미 / 웹 간사: 김영훈
- 02/26 제1회 포럼 개최 공동주최: 코리아소사이어티
 제목: 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실 수업, 한국어 수업 (강사: 김택수)
- 02/28 제4기 장학생 선발: 김수진, 김영숙, 김지연, 엄성숙, 조경자, 최경선
- 06/02 Pre Gala 개최 (장소: Double Tree Hotel, NJ)
 신입 이사 및 후원 이사 영입
- 08/20 미주한국어재단 수련회 개최 (장소: Peak Education Center), 김희석 외 23명 참석
- 09/01 Fort Lee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 교사: 김희성(3기)
- 09/10 Palisades Park Lindbergh Elementary School 한국어반 부임 : 교사 김성미(3기)
- 10/13 제6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 “한국어, 세계를 꿈꾸다”
 장학금 지급: SUNY Stony Brook 한국어교육과정 재학생 2명 (각 \$5,000)
- 12/30 제1회 설봉 뿌리교육자상 수상: 이선근 회장, 황정숙 교사위원장

- 2017 ● 02/04 제 5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연구개발위원 발족: 위원장 이현규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한국어 교수법 개발 계획 사업 승인)
- 04/21 제5기 장학생 선발: 김제시카, 로사비나, 박지연, 송선화, 정지윤
- 06/01 뉴저지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 임선희(3기)
- 07/06 제1회 공립학교 교장, 행정가 한국연수 (참가자 23명)
 NY, NJ, IL, KY, MI, MD, Virginia, GA, W, TX 등 11개주에서 참가
- 08/21 제 5기 장학생 추가 선발: 이지원
- 10/09 훈민정음 반포 571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한글날 기념 (장소: 뉴욕한인회관)
- 10/12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과 한국어 교수법 개발연구 지원 계약
- 10/19 창립 10주년 기념 및 제7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표어: ‘한국어 세계를 품다’ 외솔 최현배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채택



- 11/10 Brooklyn D-16 Korean Class: Pilot Project - 교사: 최경선, 김수진, 안금주, 지석현
- 11/30 한국어 교사 네트워크 행사 (장소: 대동연회장 NY)
- 12/15 제2회 설봉 뿌리교육자상 수상 - 홍태명 사무총장

2018

- 01/26 제6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한국어반 개설위원회 (위원장:김경화) 7개주 지역 부위원장 임명
행사위원회: 최경선 / 법률위원회: 연봉원 / 사무총장 : 홍태명
기획부장 : 이지선 / 재정부장 : 김성미 / 홍보부장 : 김희성 / 총무부장: 임선희
웹마스터 : 김영훈 / 서기 : 김지연
- 04/16 대한민국 부총리 표창 수상 - 교사 황정숙 (1기)
- 05/01 제6기 장학생 선발(8명): 길연수, 김제시카, 류경자, 설미영, 원정희, 이민영, 이범숙, 최제니퍼
- 06/07 제8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 (장소: 대동연회장 NY)
표어: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
- 07/01 제1회 미동부 한국어반 학생 한국 문화체험 연수 (참가 학생 30명)
-15
- 07/05 제2회 미동부 미국학교 교장 및 행정가 한국연수 (인솔 책임자 김경화)
-15
참가 인원 20명- 미동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에서 지원자 중 선발
- 09/03 리지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수업 개설 - 교사 임선희 (3기)
- 10/09 훈민정음 반포 572 돌 한글날 기념행사 (장소: 뉴욕한인회)
- 10/18 Stony Brook 대학교와 한국어 전공 학생장학금 지원 MOU 체결
- 11/28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류경자 (6기)
- 11/29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 수상 - 김경화 위원장
- 11/30 한국어교사 네트워크 행사 (장소: 대동연회장 NY)
뉴욕, 뉴저지 한국어 교사자격증 취득 설명회
- 12/14 AP KOREAN 채택위원회 발족식, 이광호 위원장 추대

2019

- 01/26 제7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장소: Double Tree Hotel, NJ)
- 01/28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김지연(4기)
- 03/01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이범숙(6기)
- 04/02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이지원(6기)
- 04/05 북미한국어교육학회 (AATK회장: 서주원) 지원금 전달 (\$3,000)
- 05/02 제7기 장학생 선발(11명): 권진영, 김지연, 민명숙, 박설희, 안현주, 이은주, 이지은, 임지민, 장그레이스, 홍미광, 허영재



- 06/07 한국어 교사 뉴저지 자격증 취득 - 원정희 (6기)
- 06/17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한국어반 부임: 교사 - 김수진 (4기)
- 07/04 제2회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장학생 한국 문화체험 (참가자 23명)
-16
- 07/07 제3회 미국 중고등학교 교장 행정가 한국연수 (참가자 15명)
-16
- 07/18 Fort Lee 고등학교 한국어반 부임: 김성미 교사 (3기)
- 08/08 Demarest H.S. & Old Tappan H.S. 한국어 교사 부임: 이지원 (5기)
Lindberg E. S. & Palisades Park H.S. 한국어 교사 부임: 이범숙 교사 (6기)
- 08/30 2019년 정규학교 행정가와 한국어반 장학생 한국 문화 연수 보고회 (뉴욕한인회관)
- 09/11 한국어교사 뉴욕주 자격증 취득 - 김소라 (SUNY 스토니브룩대학 장학생)
- 10/09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장소: 뉴욕한인회, NY)
- 10/19 제 9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 (장소: 대동연회장, NY)

- 2020
- 01/26 제 8회 정기 총회 및 신년하례식 (장소: Doubletree Hotel, NJ)
 - 10/09 훈민정음 반포 574 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온라인)
 - 12/28 제 10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 (온라인)

- 2021
- 05/15 제1회 한국어교육과정연구회 온라인 워크숍 /
주제: Strategies and Tools for Student Engagement
 - 05/22 뉴욕주 한글날 (Korean Alphabet Day) 기념일 제정
 - 05/26 뉴욕주 한글날 결의안 (J435) 채택 선포 축하 및 추천위원회 해단식
 - 05/30 제8기 장학생 선발 - 안금주, 오윤, 이지은
 - 06/12 제9회 정기 총회 및 제8기 장학생 환영회 (장소:마당, NJ)
 - 07/06 HSLI 한국어 강의 6주간 개설 - 교사 김지연(4기)
 - 08/07 제2회 한국어교육과정연구회 온라인 워크숍 / 주제: Korean I, Unit 8 "Travel"
 - 09/01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Queens
한국어반 개설, 교사 부임 - 안현주(7기)
 - 09/01 The Melrose Middle School 한국어반 개설, 교사 부임 - 이민영(6기)
 - 09/01 Columbia University 한국어반 강사 부임 - 김지연(7기)
 - 10/01 포트리 제1 초등학교 이중언어반, 교사 부임 - 권진영 (7기)
 - 10/09 훈민정음 반포 575돌 한국 뉴욕주 한글날 제정 기념식 (장소: 뉴욕 우리교회)
 - 12/18 제3회 한국어교육과정연구회 온라인 워크숍 / 주제: Korean I, Unit 5 "Food"
 - 12/28 제11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온라인) / 주제: 미국의 아시안 역사와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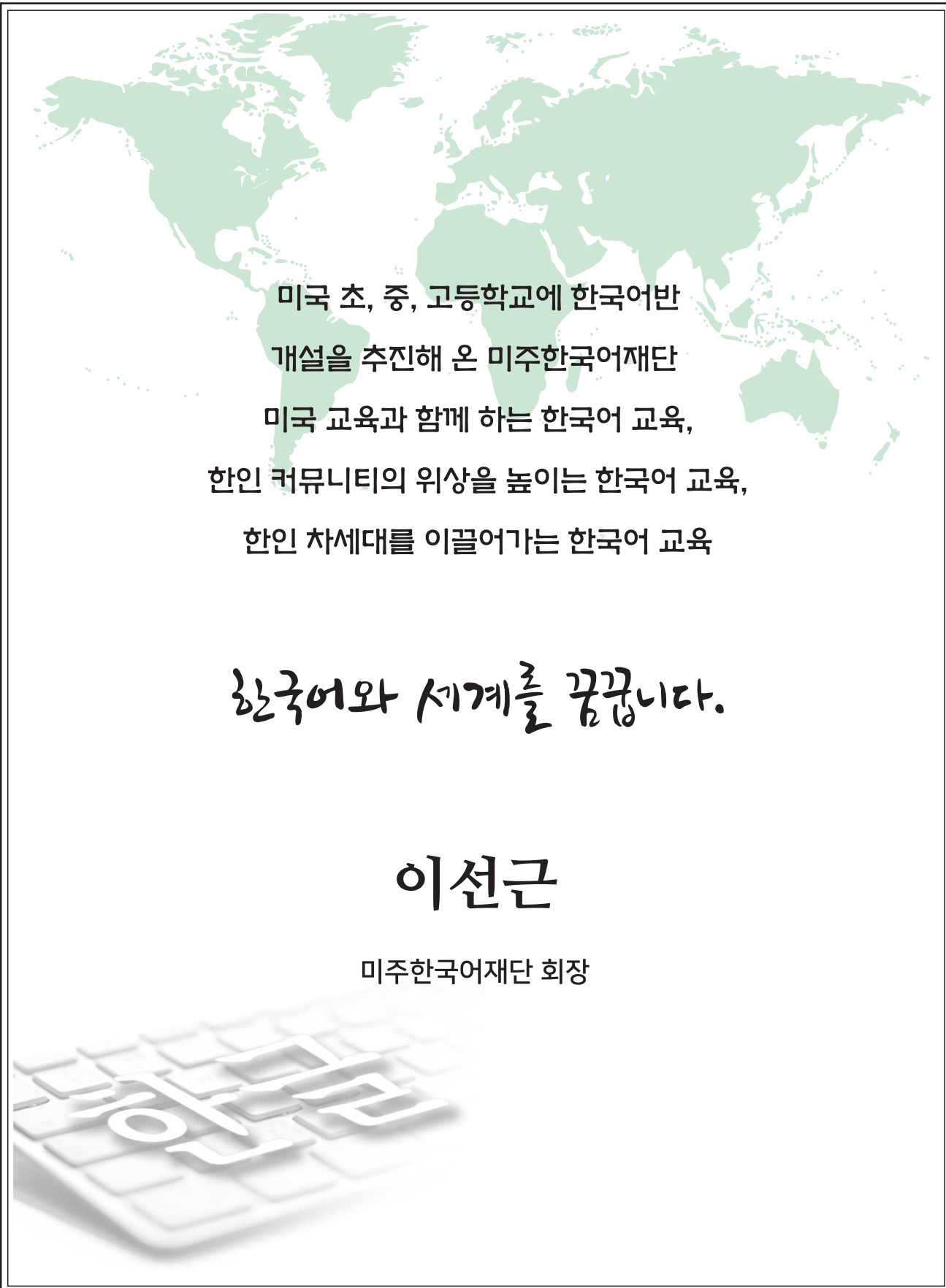
- 2022 ● 04/30 제4회 한국어교육과정연구회 온라인 워크숍 / 주제: Conjugation in Korean
- 05/07 제9기 장학생 선발 - 이영주
- 05/21 제33차 국제한국어언어문학회, 미주한국어재단 공동발표 (박찬미 위원장, 서강대학교 오경숙 교수) : 제목 - World Language Korean Teach”의 시각에서 본 미국 정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08/11 Mott Hall III Middle School 한국어반 개설, 교사 부임 이은주 (7기)
- 08/23 Paterson Arts and Science Charter School 한국어반 개설, 교사 부임 - 류경자 (6기)
- 09/01 Old Tappan HS and Demarest HS 한국어 교사 전임 - 교사 허영재 (7기)
- 09/01 Empowerment Academy Charter School 한국어반 개설 - 교사 임선희 (3기)
- 09/01 Ridgefield Memorial H.S. 한국어반 부임 - 교사 원정희 (6기)
- 09/08 School of Earth Exploration and Discovery (SEED) Harlem 한국어반 개설, 교사 부임 장 그레이스 (7기)
- 09/24 제5회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회 온라인 워크숍 / 주제: 효과적인 한국어 조사 지도 방법
- 10/09 훈민정음 반포 576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장소: 뉴욕 한인봉사센터)
- 10/24 '2022 노만 빈센트필 상' 수상 / 이사장 김영덕
- 12/27 제12차 기금모금의 밤 개최(온라인) / 주제: 미주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과 전망

미국 정규학교에 피어나는
한국어 꽃나무를 가꾸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강백현
(Baik Hyun Kang)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추진해 온 미주한국어재단
미국 교육과 함께 하는 한국어 교육,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는 한국어 교육,
한인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와 세계를 꿈꿉니다.

이선근

미주한국어재단 회장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이광호

미주한국어재단 이사
AP한국어추진위원회 위원장





Members of NYSSCPA
Members of NJSCPA

Hana CPAs LLP

www.hanacpas.com

Tae Ok Park, CPA
Tae M. Hong, CPA

New Jersey Office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

T(732) 603 – 8877 F(732) 603 – 8874

New York Office

39 West 32nd St., Suite 1600B

New York, NY 10001

T(212) 695 – 0969 F(732) 603 – 8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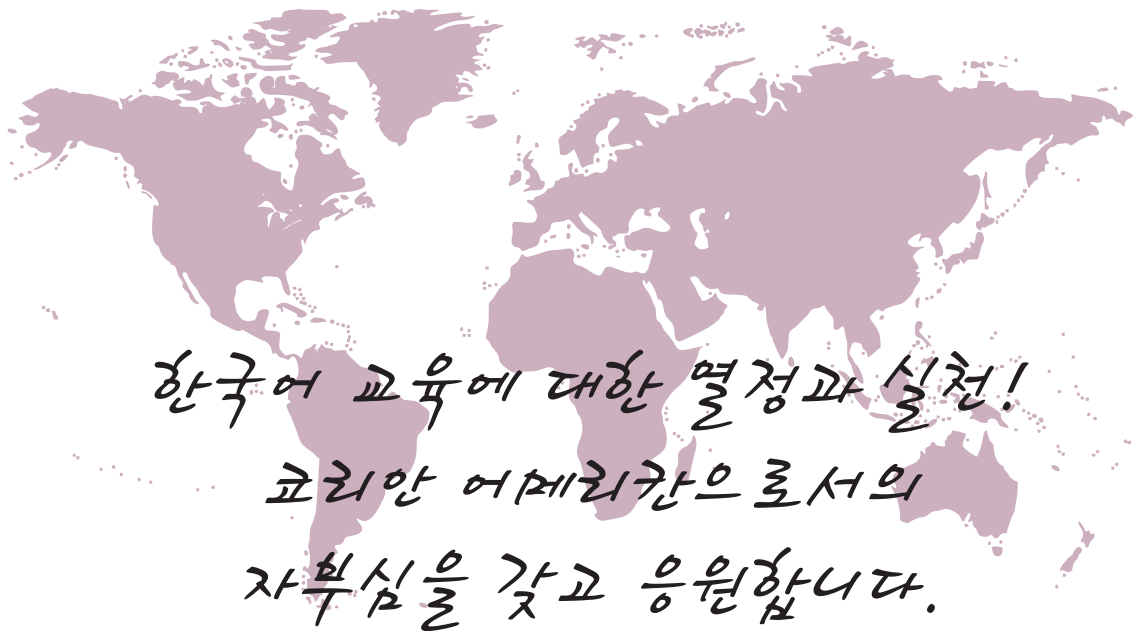


In appreciation for the KLF and its work
on behalf of the Korean community,
and its mission in promoting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r. Stuart Weinberg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조미경

미주한국어재단 사무총장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Intertex USA INC

사장 이 용 철



미국 교육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세계를 뚫다!



Baik Family Foundation

백승원, 백단옥, Andrew & Donna Baik

한국어의 세계화를 응원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실반 애비뉴 Toyota 딜러 옆 건물 2층
44 Sylvan Ave S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Kwang Ho Kim, CPA CGMA

201.947.0604



Since 1986... 신뢰와 정직의 마트,
한양마트는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위해
꼼꼼한 검증과 엄선을 통과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저렴없는 가격으로 판매함을 약속합니다.

Always Fresh, Always Affordable!



각종 세일광고, 쿠폰, 이벤트를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받으세요!

KaKaOTalk 카카오톡 채널한양

FLUSHING PLAINVIEW RIDGEFIELD

카카오톡 검색창에
유저ID: hanyangmartny
닉네임: H hanyangmartny
주소: 44 Sylvan Ave S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양마트 온라인 쇼핑몰

이웃을 보듬는 사랑을 가슴사레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먹거리, 비싼 할인을 위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벤트에서 한정판 상품을 통해 이상적인 그로시리부터 잡채, 과일 및 각종 선물세트, 간편요리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세요!

WWW.HANYANGMART.COM

(온라인 쇼핑몰 관련 문의전화: 718-461-1911)

SCAN THE QR-CODE
WWW.HANYANGMART.COM

매일 1일 단 하루
BOGO
BUY ONE GET ONE FREE

동서양 그로사리, 야채, 생선, 정육, 생활용품 등 700여가지가 넘는 인기상품이 하나라면 하나 더 오르는 물가에 지친 동포들을 위한 한양마트의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즐기세요!

HY MARKETPLACE FLUSHING 19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HY MARKETPLACE PLAINVIEW 475 Plainville Rd., Plainville, NJ 07051
HY MARKETPLACE RIDGEFIELD 1 Roman Pl., Ridgefield, NJ 07070

한양고동생선판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선별된 3년 한살미 낚을 수 있는 고급 생선로, 한살고국물신선액이 함께해서 맛과 향이 풍부한 한양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 한 매장 방문 또는 전화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T. 718-461-1911
(TOLL FREE 877-496-7337) (인터넷주문: www.hy1004.com / 온라인상담: info@hanyangm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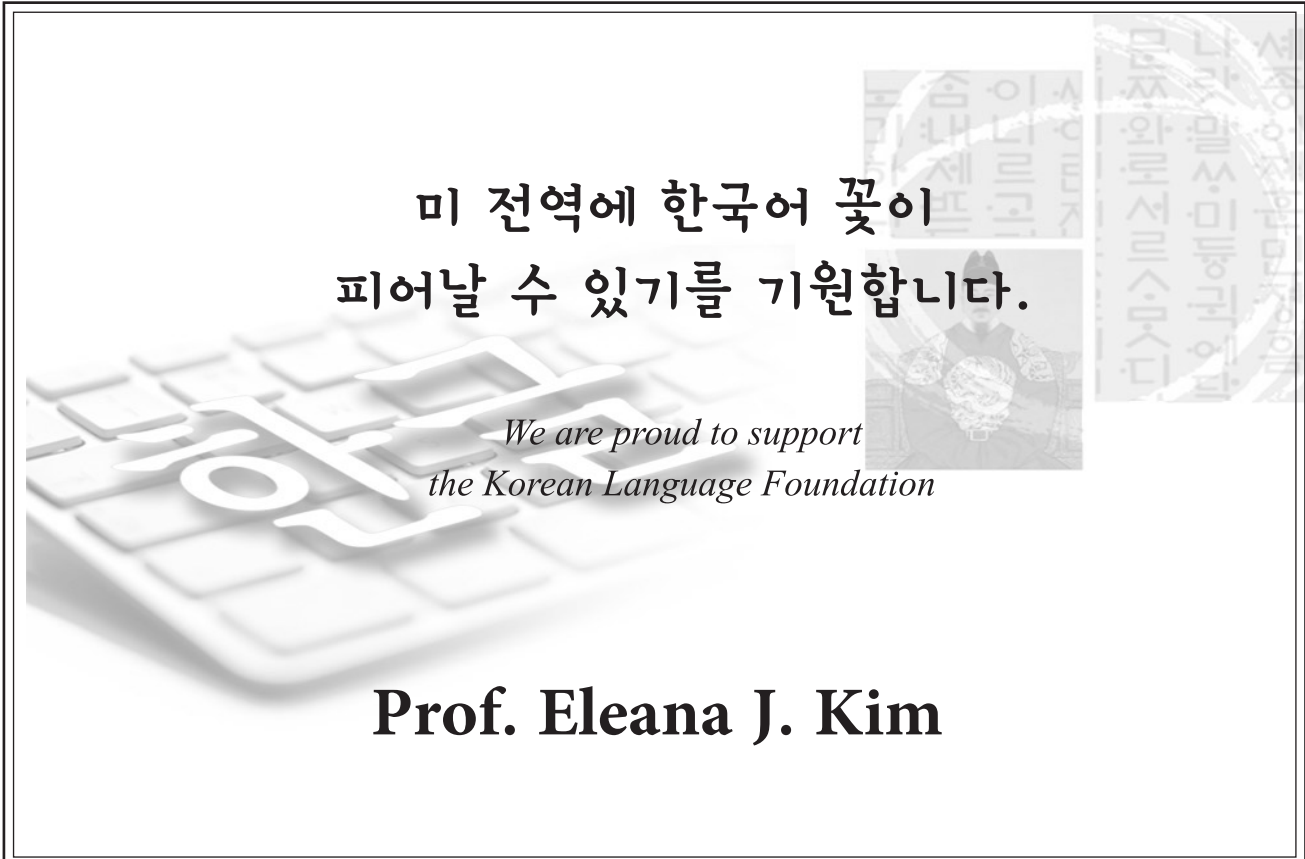


한국어

깨끗하게 하기 실천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Prof. Lawrence Y. Kim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Prof. Eleana J. Kim



한국어,
세계를 꿈꾸다.
응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정영인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 꽃나무를 가꾸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한울림교회

담임목사 김원재

한국어
깨끗하게 하기 실천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박종원 변호사
Law office of Jong Won Park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Myong S Yu

한국어 꽃을 피워올리는
모든 손길을 응원합니다.

"Learn Korean, Lead Millennium!"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회장 강성방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동이 보험

Dong-E Insurance Agency

635 E Palisade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03-0003

한국어와 함께 꿈꾸는 내일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예 당
YEDANG®



www.yedangusa.com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반 발전을!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Atlantic
Cleaners

한국어

바르게!

풍부하게!

함께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Palisades Park

한인 학부모회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반 발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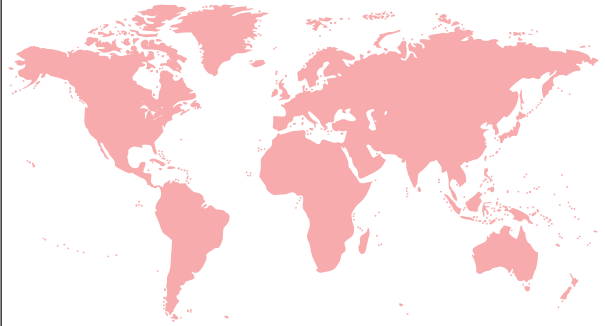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이승희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발전 !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이장원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이정공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손경택

한국어
쉽게, 바르게, 너르게 하기
함께 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민중기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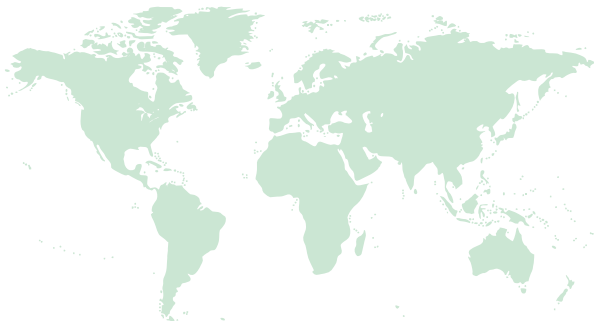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정도현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반 발전을!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이경화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최용호

한국어
쉽게, 바르게, 너르게 하기
함께 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최학주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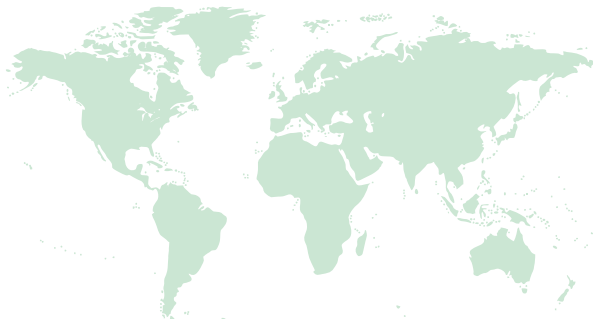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박정선
(Joung Sun Park)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반 발전을!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강선인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조경아

미주한국어재단과 함께
한국어반 발전을!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Han Jin Lee

미 전역에
한국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최석태

(사랑한국학교 교장)

한국어
쉽게, 바르게, 너르게 하기
함께 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Keun Chul Lee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변현수

(사랑침례교회 담임목사)

한국어
 쉽게, 바르게, 너르게 하기
 함께 합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고은자

(롱아일랜드한국학교 교장)

한국어 반 개설과 성장!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고성옥

(찬양문화학교 교장)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김치하나
 Kimchi Hana

KOREAN -JAPANESE RESTAURANT

Original Korean Barbecue

Mon-Sun 11:30am~10:00pm
 6101 Hadley Road, Middlesex Mall
 South Plainfield, NJ 07080

Tel. 908-755-0777

Fax. 908-755-4675

*We are proud to support
 the Korean Language Foundation*



뉴욕한인회 KAAGNY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149 West 24th St. 6Fl., New York, NY 10011
 212-255-6969 www.kaagny.org

Congratulations!

Korean Language Foundation's

9th Annual Benefit Gala

미주한국어재단
제12회 기금모금만찬을
축하드리며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 이종훈



UNICORN™
GRAPHICS

Printing Communications & Graphics Solution

“성장하는 기업”

세계 정상 of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KISS

여러분과 함께 다음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S

한국어, 세계를 품다!
미주한국어재단을
후원합니다



Kiss Products, Inc.

25 Harbor Park Dr., Port Washington, NY 11050
516-625-9292



SHAKE-N-GO®

The SHAKE-N-GO® Group proudly sponsors

THE 12TH KLF ANNUAL BENEFIT GALA
미주한국어재단 기금모금의 밤

MODEL MODEL®



SHAKE-N-GO®



MAYDE®
-BEAUTY-



For more information
Follow us on Social Media